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외국어로서 독일어 교재에 나타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 분석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를 중심으로」-

Eine Analyse von Themenbereichen und Präsentationsweisen der Landeskunde im Lehrbuch für DaF: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류 지 아

외국어로서 독일어 교재에 나타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 분석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광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류 지 아

류지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요약

근래에 DaF 수업에서 지역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는 더 이상 단순히 언어체계를 학습하고, 외국어 시험과 특정 분야에서의 외국어 활용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어 교육은 단지 언어체계를 학습하는 것을 통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국어 교육은 언어학습과 동시에 목표언어국가의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목표언어를 학습함으로써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목표언어국가의 지역사정 학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외국어 학습을 위한 지역사정 교육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정 교육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자는 목표언어국가의 지역사정학습을 통해서 목표언어국가의 문화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외국어 활용의 오류를 줄이고, 목표언어국가를 폭 넓게 이해함으로써 외국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갖출 수 있다. 둘째, 지역사정 교육은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자는 지역사정 학습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심화할 수 있고, 따라서 타문화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타문화를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받아들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자문화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이해 그리고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정 학습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정의 발전경향을 살펴본다. 지역사정(Landeskunde)은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고, 한국어 용어로도 일관되게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역사정 교육은 대부분 독일어 수업에서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aF 수업에서 독일어 어학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필자는 이에 나타난 지역사정의 내용을 주제와 전달방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사정 학습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바탕이 된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지역사정은 사실적, 의사소통적,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이라는 3가지의 방안으로 나누어진다. 사실적 지역사정은 외국어 수업에서 초기에 시도되었으며, 지역사정의 정보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두 번째로 시도된 방안은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이다. 이는 학습자가 특정상황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정을 학습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이다. 이는 80년대부터 외국어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호문화적 교수법에 따라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독일어로서의 외국어 분야에서 이뤄진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적 교수법이 수업에서 중요시 되면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 “Tübinger Modell”을 통해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이 체계화 될 수 있었다. 한편, 전달방식에서는 Ammer와 Grawe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Ammer는 교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 전달방식을 ‘지역사정을 여러 주제로 구분하고 사실 그대로를 모방하여 제시하는 방식’, ‘독일 사회의 표준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는 방식’, ‘독일을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방식’, ‘특정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방식’, ‘비판적이고 자립심 함양을 위한 전달방식’으로 나누었다. Grawe는 교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 전달방식을 ‘언어수업의 한 요소로서 지역사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언어수업에 관계없이 지역사정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 ‘문학작품을 통해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Ammer는 교재의 측면에서, Grawe는 교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을 통해 분석하였다. 필자는 외국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서 교재, 교사, 학습자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이 고려될 때, 실용적인 지역사정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Ammer와 Grawe의 이론에 더하여 학습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분석을 시도한다. 필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 교사. 학습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사정 수업의 활용방안을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독일어 교재에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사정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과 함께 학습 자료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현재의 한국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역사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요 어: 지역사정
Schritte international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주제영역
전달방식

학 번: 2010-23569

목 차

1. 서론 ····· 1
1.1 논문의 목적 ····· 1
1.2 논문의 방법 ····· 3

2. 지역사정의 발전경향 ····· 5
2.1 지역사정의 개념과 내용 ····· 5
2.2 지역사정의 역사 ····· 9

3. 외국어로서 독일어 분야에서의 지역사정 ····· 16
3.1 사실적 지역사정 ····· 16
3.2 의사소통적 지역사정 ····· 19
3.3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 23

4.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 이론 ····· 29
4.1 지역사정의 주제영역 ····· 29
4.2 지역사정의 전달방식 ····· 33

5.「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서의 지역사정 ····· 37
5.1 교재의 구성 ····· 37
5.2 지역사정 분석 ····· 39
5.2.1 주제 분석 ····· 40
5.2.2 전달방식 분석 ····· 63
5.3 독일어 교재에서의 지역사정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에 대한 제안 … 75

6. 맺음말 ····· 81

참고문헌 ····· 87

Zusammenfassung ····· 93

표 목 차

[표 2.2-1] 노이너의 지역사정 발전단계 ····· 10
[표 4.1-1]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에 제시된 주제영역 ····· 30
[표 5.1-1]「Schritte international」의 단원 구성 ····· 39
[표 5.2.1-1]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 내용 분류 ····· 40
[표 5.2.1-2]「Schritte international」본문에 나타난 지역사정에 따른 주제영역 분류 ····· 55
[표 5.2.1-3]「Zwischenspiel」에 나타난 지역사정 주제영역 ····· 59
[표 5.2.2-1] 교재의 측면에서 바라본 Ammer의 지역사정 전달방식 ····· 63
[표 5.2.2-2] 교사의 측면에서 바라본 Grawe의 지역사정 전달방식 ····· 65

그 림 목 차

[그림 3.1-1] 사실적 지역사정의 예1) ····· 17
[그림 3.1-2] 사실적 지역사정의 예2) ····· 18
[그림 3.2-1]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의 예1) ····· 21
[그림 3.3-1]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의 예1) ····· 25
[그림 3.3-2] 상화문화적 지역사정의 예2) ····· 26
[그림 5.2.2-1]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 ····· 69
[그림 5.2.2-2] 역할(상황)극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 ····· 71
[그림 5.2.2-3] 학습자 간의 토론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 ····· 72

1. 서론

1.1 논문의 목적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울 때, 학습자는 먼저 해당 언어의 문자 기호들을 익히고, 문법적 지식을 습득한다. 학습자는 문법지식을 사용하여 습득한 문자 기호를 조합하고, 외국어의 체계 안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외국어를 구사할 때, 그 표현의 의미가 부정확해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이 이해 할 수 없거나 그 학습자의 표현을 어색하게 느낄 때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의사소통적 언어표현의 미숙함과 상황에 대한 느린 대처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서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인은 학습자의 지역사정에 대한 학습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의식하기 위하여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자연적 조건, 정치, 경제, 문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 따라서 외국어 학습의 또 다른 목적은 목표언어국가의 사람들에게 각인된 현실, 즉 문화, 역사, 정치, 경제 등의 지역사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정 교육은 목표언어국가의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사정을 미리 습득하고 있다면, 특정 상황에 알맞은 언어적 행동을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정 교육이 이루어 질 때, 학습자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감지하여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국어 학습이 더 이상 언어학습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학습자는 지역사정 교육을 통해 언어표현의 배후에 놓인 맥락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외국어를 올바르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상대방이 말하는 언어적 표현에 숨겨진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여, 언

---

1) Heyd, G., *Aufbauwissen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DaF). Ein Arbeitsbuc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97, 47.

어학습과 더불어 감각적으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정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머릿속에 “선명한 지역사정적 심상(Die plastischen landeskundlich-en Vorstellungen)”[2]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외국어 학습에서 지역사정 학습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독일어 수업과 교재 속에 나타난 목표언어국가의 지역사정 내용들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과 언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현실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수업의 참여자들이 지역사정을 단지 어학학습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 그러나 학습자는 외국어를 배울 때, 지역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표언어국가의 문화를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언어를 구사할 때 상황에 맞지 않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오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계산하는 대화의 상황에서 손님에게 웨이터가 “getrennt oder zusammen?” 이라고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학습자는 이미 알고 있는 getrennt와 zusammen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대략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어떤 국가와 문화권 출신인가에 따라 이러한 웨이터의 행동을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식사 후 계산을 같이 하는 것인지, 따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목표언어국가의 성향과 생활방식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는 수없이 발생한다. 지역사정 교육은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상황에 적합한 의사소통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학습자는 지역사정 교육을 통해 외국어 학습 안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제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을 효과적이고 체계

---

2) Wazel, G., Prolegomena zum Studienfach Auslandsgermanistik für Muttersprachler, In: Henrici, G./Koreik, U.(Hrsg.), *Deutsch als Fremdsprache. Wo warst Du, wohin gehst Du?*,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1994, 180.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사정의 활용에 대한 제안이 독일어 교재에 반영되어 실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체로 교사와 학습자는 교재를 중심으로 지역사정 요소를 접하기 때문에 교재 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선택했다. 독일어 교재는 이미 수업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 속의 지역사정을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역사정의 학습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실용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1.2 논문의 방법

본 논문에서는 어학교재「Schritte international Ⅰ-Ⅵ」[3]에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를 분석하기로 한다.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는 현재 서울대, 전남대 등 다수 대학교의 독일어 관련전공에서 독일어 어학교재로 채택하고 있으며, 앞서 집필된 「Schritte」, 「Schritte Plus」시리즈에 이어 한층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여 지역사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는 총 6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접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난이도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그림과 듣기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각 단원의 마지막 장은 독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층 깊게 접근하여 다양한 지역사정을 다룬 「Zwischenspiel」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교재의 구성은 언어 습득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목표언어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정을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교재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분석을 통해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외국어 학습의 핵심요소라 생각한 교재, 교사, 학습자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의 학습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지역사정 주제영역을 고려하고 전달방식을 분석한다. 더하여 분석

3) Niebisch, D./ Hilbert, S. u.a., *Schritte international*, Hueber, 2006, I-Ⅵ.

한 결과는 독일어 교재에서 효과적인 지역사정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을 제안하는 데 자료로 활용한다.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지역사정의 개념과 역사를 통해 발전경향을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지역사정의 개념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이라는 범위로 제한한다. 특히 지역사정은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 영역에 더 큰 의미를 준다. 따라서 먼저 이 부분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지역사정의 역할을 기준으로 지역사정의 내용을 다루어 보았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지역사정 연구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사정의 발전경향을 이해해 본다.

제 3장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나타난 지역사정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교수법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 시도된 사실적 지역사정과 지역사정을 하나의 언어적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사소통적 지역사정, 마지막으로 타문화 간의 비교를 통한 이해의 측면에서 바라본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이라는 세 가지 지역사정 방안으로 나누어 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독일어로서의 외국어 분야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에서 연구된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 5장에서는「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각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 독일어 교재에서 어떻게 지역사정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안한다.

먼저 5.1장에서는 교재의 구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5.2장에서는「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 나타난 지역사정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을 분석한다. 위의 교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 5.3장에서는 독일어 교재에서 다뤄질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사정 활용방안을 위하여 교재, 교사, 학습자의 측면에서 고려된 주제영역과 지역사정 전달방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장에서 다룬 지역사정 개념, 발전상황을 비롯한 교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를 위한 지역사정 학습 활용방안과 연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한다.

2. 지역사정의 발전경향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 지역사정이라는 분야를 하나의 전문 학문영역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지역사정의 개념과 역할, 내용 등 세부적 사항들이 연구되면서, 점차 지역사정의 중요성과 가치는 인정되고 있다. 지역사정을 지칭하는 용어와 외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은 여러 논문과 연구 자료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지역사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나,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정의 개념과 내용, 역사를 통해 발전경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지역사정의 개념과 내용

독일어권 문화 및 지역사정의 용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사정을 지칭하는 용어는 교육적 목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Landeskun -de”, “Landeskundefach”, “kommunikative Landeskunde”, “interkulturelles Lernen″, “interkulturelle Landeskunde”라는 용어들은 각각 나름대로 추구하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4)]

지역사정 용어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Landeswissenschaft′는 ‘Landeskunde’보다 이후에 나타난 개념이다. ‘Landeskunde’는 언어학습의 한 부분에 속하는 반면, ‘Landeswissenschaft’는 이러한 언어학습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자료와 방법론이 가미되어 발전된 단계로 정의되고 있다.[5)] 이에 필자는 ‘Wissenschaft’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자체가 ‘학(學),

4) 안명수/하수권, 지역 및 문화 교육 중심의 외국어 교수법 관점에서 살펴 본 고등학교 독일어 교재의 개선방안, 교육논총 제 2집, 2000, 314.

학문'을 뜻하므로, 'Landeswissenschaft'를 더 전문적 학문영역으로서 지역학이라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의 여러 연구와 논문자료에서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Landeskunde'를 '지역사정'으로 번역하고자 한다.[6]

지역사정은 목표언어국가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관련된 사회, 경제, 지리, 역사, 예술 등과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또한 지역사정의 연구대상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해당 외국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목표언어국가이다. 지역사정은 특정 지역의 언어적 공간과 그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패턴이 결합된 것이다.[7]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지역사정은 목표언어국가인 독일어권 국가 사람들의 생활구조와 문화, 일상생활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언어적 행동지식, 타문화 사이의 차이, 유사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정은 외국어 학습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으며, 언어와 연계되는 하나의 학습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8]

외국어 수업에서 지역사정 내용의 범위는 매우 넓다. 지역사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소재는 목표언어국가의 인사법, 주거, 여가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부터 예술, 역사, 정치와 같은 높은 수준의 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목표언어국가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외국어 교육에서 지역사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선별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사

---

5) Penning, D., Landeskunde als Thema des Deutschunterrichts – fächerübergreifend und/oder fachspezifisch? In: *Info DaF 22/6*, 1995, 638.

6) 김미승, 독일어 교육에서 문화 및 지역사정 교육의 의미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이문화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관점에서 –, 독어교육 제 2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3, 53-81., 김한란, 지역사정과 프로젝트작업,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6권,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000, 52-62., 김한란, 독어독문학과 독일학 연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의 지역사정, 독일어문화권 연구 7권,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1998, 177-193., 하수권, 지역사정 및 문화교육 중심의 독일어 전공교육 발전 가능성 고찰, 외대논총 27권, 부산외국어 대학교, 2003, 85-100 등 다양한 논문에서 " Landeskunde" 를 지역사정으로 사용함.

7) Buttjes, D., Landeskunde-Didaktik und landeskundliches Curriculum, In: Bausch/Christ/Krumm -(Hrsg.), *Hand-buch Fremdsprachenunterricht*, Tübingen, 1989, 112-113.

8) Biechele, M./Padrós, A., *Didaktik der Landeskunde*, Fernstudieneinheit 31, München u.a. 1999, 7.

정의 내용으로서 선별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지역사정의 역할을 토대로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사정의 내용을 선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어 수업에서 지역사정의 역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지역사정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 지역사정은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학습과 목표언어국가의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한다. 지역사정은 그 자체가 언어 교육은 아니지만, 학습자가 목표언어국가와 그 사람들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지역사정은 학습자에게 목표언어를 배우는데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정에 관한 흥미 있는 정보들은 학습자에게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는 지역사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소재를 통해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언어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정은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정은 학습자에게 상호문화적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지역사정을 통하여 그 나라의 지리적인 특징, 자연환경과 외교정책,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그 나라의 국민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국가 또는 문화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이해 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비롯한 언어학습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사정의 역할을 토대로 지역사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선별기준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지역사정 내용은 목표언어국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사정은 현실과 수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수업에서 지역사정의 내용을 목표국가의 현실로 받아들인다. 만약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지역 사정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면 학습자는 의사

소통 상황에서 표현적으로 실수를 범하거나, 오히려 목표언어국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정의 내용은 신뢰 가는 사실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목표언어국가의 생활방식과 사람들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충분히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여 올바른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정 내용은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학습자의 관심이 없다면, 지역사정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물론 지역사정이 너무 흥미 위주로 다루어 져서는 안 되지만,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관심을 끄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사정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거나, 목표언어국가의 또래 집단의 대표적인 관심사와 연관된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나이를 고려한 목표언어국가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인터넷, 컴퓨터, 유행, 패션 등과 같은 내용이나 자신의 국가와 유사하여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용이하다. 반면에 지역사정의 내용으로 학습자와의 현실과 차이나 너무 나거나 학문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오히려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셋째, 지역사정 내용은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정 내용에는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담겨 있다. 수업에서 다뤄지는 지역사정의 내용은 단지 목표언어국가의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외국어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정은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적 능력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의사소통적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자는 실제 의사소통의 대상자를 목표언어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습자는 그 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격과 습관, 특정 상황 등에 대하여 제시하는 지역사정 내용을 필요로 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역사정

내용을 접할 때, 실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상호문화적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는 수업에서 전달된 지역사정 내용을 통하여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정의 내용은 학습자로 하여금 막연히 동경심을 갖게 하거나 종속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역사정의 내용은 학습자에게 너무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침 없이 학습되도록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입견과 적대감 없이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2.2 지역사정의 역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 지역사정에 대한 논의는 외국어 교육의 역사적 특징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17, 18세기에 지리학적 접근을 시작으로 인종학적, 민족학적 관점(19세기), 최근에는 목표언어국가의 문화, 혹은 일상생활, 상호문화적 영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역사정 역사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통해 지역사정이 사회적인 요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비교적 자세히 제시한 노이너의 이론을 토대로 지역사정 발전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노이너는 외국어 수업에서 지역사정의 개념을 8개의 시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노이너의 의견에 따른 지역사정의 역사를 연대적으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다.

시 대	명 칭
19세기	Kulturkunde Ⅰ
1870년~제 1차 세계대전	Realienkunde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KulturkundeⅡ
제 3제국	KulturkundeⅢ
50년대	DDR. 사회주의 관점에서의 Landeskunde
60년대	포괄적인 경험으로서의 Landeskunde
70년대 중반 ~ 80년대	보편적인 생존경험으로서의 Landeskunde

80년대 말 이후	상호문화적 개념에서 문화이해와 낯선 것의 이해

<표 2.2-1> 노이너의 지역사정 발전단계[9)]

지역사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사정은 그 당시의 사상과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정의 주제와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10)]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수법이나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는 노이너가 제시한 지역사정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정의 역사를 재정리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외국어 교수법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2. 외국어 교수법의 방안에 따라 시도된 각 지역사정 방안은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가?

1) 1860-1870년대: 외국어 수업의 혁명적 움직임

초기 지역사정은 외국어 수업과 분리되어 학습되었으며, 특별히 언어 수업과 관련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187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지역사정을 지칭하는 용어는 “독일사정(Deutschkunde)” 또는 “독일학(Deutschwissenschaft)”에서 “문화학(Kulturkunde Ⅰ)”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명칭들은 학습의 내용보다는 독일의 학교와 교육기관, 협회의 교육개정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이 당시 지역사정의 학습의 대상은 외국어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가 아니라, 엘리트 집단이었다. 따라서 지역사정은 상위 고급교육 기관의 한 과목으로서, 철학이나 문화, 역사와 같이 교양있는 지식인들의 양성을 위한 과목이었다. 따라서 지역사정 교육은 정신적 교육의 측면을 강조하였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지식과 인물들을 소개하

9) Neuner, G., Landeskundekonzepte im Fremdsprachenunterricht Beispiel: fremdsprahchlicher Deutschunterricht, In: 인문과학연구 16집,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68-72.

10) 독일의 나치시대에는 지역사정이 “나치이념에 맞추어 ... 독일민족성의 우수성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타문화는 독일문화와의 상하관계 하에 나치 이념에 따라 존중되거나 멸시되었다.” 김한란, 독일어 교육과 지역학,「응용지리」제 21호, 1998, 42.

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지역사정은 당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과목으로 인정은 되었지만, 외국어와 문화영역을 다루는 범위는 극히 한정되었다. 이후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지역사정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 시기를 거치며,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외국어 교육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게 된다.

2) 1890년대 개정에 대한 논의: 사실학(Realienkunde)과 문화학(Kulturkunde)

외국어 교육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1880년대는 고전어와 문법 위주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비판이 일어난 시기였다. 제국주의가 지배적이었던 189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당시에 외국어 수업에서 지역사정은 “사실적인 것”, “낯선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지역사정은 사실학(Realienkunde)으로 명명되었고, 사실학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그들의 문명, 국가와 사회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목표였다. 하지만 사실학(Realienkunde)을 대표하는 수업자료들은 단지 타국의 국민성에 대한 내용이었다.[11]

이후 연이은 강대국들의 식민지화 정책과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는 진보적인 시대적 발전에 따라 외국어 지식에 대한 요구는 지적 활동 속에서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사정에는 낯선 것들로부터 전형적인 독일의 특징을 구별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이 당시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민족 간의 상호적 관계를 찾고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외국어 교육 영역에서 지역사정은 문화학(KulturkundeⅡ)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1920년대 지역사정의 주된 내용은 독일이 정신적, 문화적으로 우세하며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후에도 지역사정의 내용은 역시 독일을 우월함을 선전하는 내용들로 제한되었다. 이처럼 전쟁의 위기와 1920년대에 문화학(Kulturkunde Ⅲ)이 만연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11) Christ, H., Geschichte der Fremdsprachendidkatik, In: Hallet, W./Königs F.G.(Hrsg.), *Handbuch Fremdsprachendidaktik*, Berlin: Friedrig Verlag, 2010, 17.

는 외국의 문화와 비교되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부터 50년대까지 지역사정의 목표는 민주적인 시민양성을 위한 개방적인 관점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선도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둔 사회주의적 교육을 위한 시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정은 시민교육을 위한 학문적 도구로서, 시민의 상호문화적 교육을 하는 데 이용되었다. 하지만 동독지역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민주적인 시민양성을 목표로 삼는 이념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당시의 독일연방공화국과 동독에서는 지역사정의 개념을 다르게 취하고 있다.

3) 세계 2차 대전 이후(1960년): 지역사정의 새로운 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국어 교육의 흐름은 이론적 측면에서 교수법과 학습내용이 이전과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외국어 교육에서 사용되는 학습교재는 문법체계를 효과적으로 다룬 책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이전의 교재와 유사한 제목이거나 구시대적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고, 구시대적인 교수법 지도서와 잡지들이 다시 출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12)]

외국어 수업에서 교수법의 방향이 의사소통능력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지역사정의 목표 역시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을 할 때 유익한 주제와 내용을 학습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이라는 학습 목표는 외국어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내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 목표는 현실적으로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은 실제적으로 문법적인 구조와 개념에 의존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외국어 수업에서 지역사정의 내용은 외국어 교육을 위한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영어권 국가의 DaF 커리큘럼에서도 약 1950년대까지 명확한 지역사정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13)]

---

12) Christ, H., Geschichte der Fremdsprachendidkatik, In: Hallet, W./Königs F.G.(Hrsg.), *Handbuch Fremdsprachendidaktik,* Berlin: Friedrig Verlag, 2010, 19.

13) Huneke, H./Steinig, W.,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iihrung*, Berlin: Erich Schmidt

이후 60년대에 이르러 외국어로서 독일어 분야에서 사실적인 지역사정 방안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지역사정은 이전보다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의되어 질 수 있었다. 객관적인 지역사정 연구에 따라 각 국가들의 독자성이 명확해졌고, 외국어 수업에 지역사정이라는 분야가 차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외국어 학습에서 문법적인 구조와 지역사정의 학습이 실제적으로 함께 행해졌다.

외국어 교육의 학습목표는 60년대 사회비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레 지역사정의 발전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비판에 대한 요구는 지역사정 발전에 기여하였다. 초기에 시도된 사실적 지역사정은 국가, 풍습, 역사와 같이 고급학문의 영역에 속하거나 좁은 범위 내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70년대 의사소통적 능력을 중요시 하게 되면서 지역사정 역시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과 행동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의사소통 지역사정의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언어국가의 환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외국어로 전달할 때, 지역사정의 내용이 의사소통 능력을 감각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4]. 의사소통적 교수법의 시작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가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 뒤이어 70-80년대 등장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비교와 타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고려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지역사정은 90년대에 들어서 독일어권 국가의 통합적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과 같이 독일어권 국가들은 오랫동안 지

Verlag, 2000, 56.

14) Storch, G., *Deutsch als Fremdsprachen, Eine Didaktik*,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1999, 286.

역사정의 자료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정 분야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 중 ABCD-Thesen은 통합적 지역사정의 연구에 시발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 지역사정의 독자적인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이를 통하여 독일어권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교환되며 통합적 지역사정 연구가 활기를 띄었다.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은 독일어권 국가의 지역사정을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었고, 더불어 독일어의 음운론적, 어휘적 그리고 형태론적-통사론적 다양성이 고려되었다.

이후 통합적 지역사정의 대표하는 ABCD-Thesen의 발전은 곧 이른바 D-A-CH(L) Konzept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D-A-CH(L)(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이 추구하는 원리는 3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세 나라(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독일어권 지역의 통합, 두 번째는 계획과 완성을 목표로 둔 학습의 통합, 마지막으로 언어수업과 지역사정의 통합이 추구된다. 이러한 통합적 지역사정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연구 중 또 하나는 바로 1992년 사회의 다양한 전문영역의 통합이 이루어진 튀빙겐 모델(Tübinger Modell)이다. 튀빙겐 모델은 실제적으로 학습자가 지역사정의 사실성(Authenzität)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학습자는 튀빙겐 모델을 통하여 “체험하는 지역사정(erlebten Landeskunde)”[15]을 실현할 수 있었다.

지역사정은 초기에 외국어 교육에서 뚜렷하게 인식되지 않은 영역이었다. 하지만 70년대 의사소통적 교수법이 도입된 이후, 지역사정은 외국어 교육에서 빠르게 성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은 실제 생활과 가능성을 연결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정이 언어학습과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ABCH-Thesen, D-A-CH(L), 그리고 튀빙겐 모델은 학습자가 독일어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는 같은 독일어권 국가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문화적 차

15) Rösch, H., *Deutsch als Zweit- und Fremdsprache*, Berlin: Akademie Verlag, 2011, 132.

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을 통합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정의 연구범위를 더 넓혀 주었다. 이 결과, 외국어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사는 지역사정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지역사정 분야에서도 다양하고 넓은 시각에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외국어로서 독일어 영역에서 지역사정은 끊임없는 논의와 함께 초기의 모습과 달리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지역사정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 사회적, 교수법적 변화는 지역사정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사정은 외국어 교육의 역사와 교수법의 영향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한 전문 영역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가장 외국어 교육의 교수법에서 집중되고 있는 상호문화적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Rösch는 지역사정은 DaZ 학습 영역에서는 거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영역이었지만, DaF와 다른 교수법 영역에서 지역사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의 생활과 DaF 학습이 독일어권 영역에서 또는 독일어를 접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관점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6]

최윤영 역시 최근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DaF' 부문에서 나오는 일련의 연구 성과들은 지역사정의 목표 및 정의도 분명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개발이나 교수법 및 방법론 개발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7]

지역사정은 순수한 언어학습의 차원을 넘어 외국어 교수법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안으로 시도되며 발전하였다. 지역사정은 언어와 문화가 결합된 형태로서 학습되기도 하며, 이제는 독립적인 수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상호문화적 교수법과 다문화 사회를 고려하는 현재의 외국어 교육의 흐름 속에서 지역사정 연구는 필수적이며, 이는 앞으로 지역사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

16) Rösch, H., *Deutsch als Zweit- und Fremdsprache*, Berlin: Akademie Verlag, 2011, 131.

17) 최윤영, 독어독문학 수업과 지역사정 - 지역사정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2집, 1997, 253.

3. 외국어로서 독일어 분야에서의 지역사정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 지역사정은 외국어 교수법을 반영하여 각각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 지역사정 개념은 순수한 정보차원(Informationsorientierte Landeskunde), 언어차원(Sprachbezogene Linguo-Landeskunde), 상호문화차원(Interkulturelle Landes-kunde)으로 설명되고 있다.[18] 이 논문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에서 나타난 지역사정 방안을 사실적, 의사소통적,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지역사정 방안은 교수법에 따라 서로 다른 학습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시도된 각 지역사정 방안을 교수법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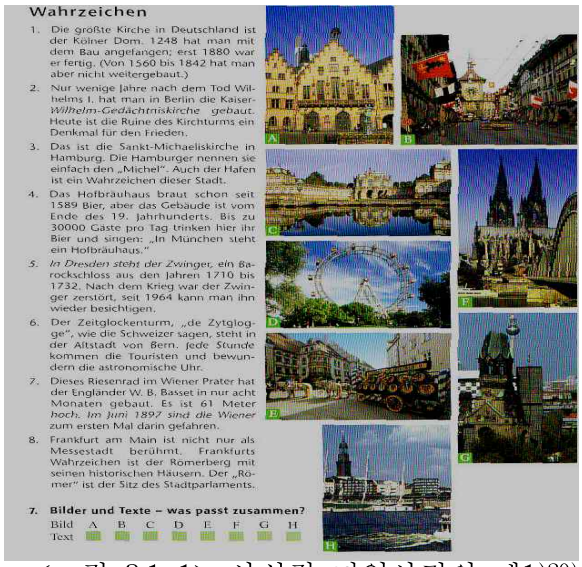
3.1 사실적 지역사정

1950년대에는 교육의 상위 학습목표로서, 신인문주의적 교육이념(ein neuhumanistischer Bildungsbegriff)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무엇보다 학습자의 정신적-도덕적인 성숙을 강조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서는 학습자들 간의 이해를 위하여 언어의 전달을 중요시 했다. 따라서 외국어 수업에서는 이에 상응한 학습 내용으로 언어의 문법적 구조와 같은 언어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교수법의 영향으로 외국어 학습에서는 실제적으로 학습자에게 외국어를 전달하는 데 관련된 내용을 필요로 했다. 사실적 지역사정 방안은 이러한 요구로 인하여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사실적 지역사정의 학습목표는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실적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관, 국가 그리고 고급문화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사실적 지역사정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정치적 주제(외교정책, 헌법), 사회적 주제(여성과 여성운동, 기독교와 가톨릭교회) 또는 문화적 주제(극장, 건축, 광고)에서

18) 이광숙, 독어교육이론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중심으로 -, 독어교육 14권, 1996, 86.

비롯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정 내용은 어린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고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그다지 많이 요구되지 않는다.[19] 필자는 사실적 지역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예를 몇 가지 제시해 본다.


Wahrzeichen

1. Die größte Kirche in Deutschland ist der Kölner Dom. 1248 hat man mit dem Bau angefangen; erst 1880 war er fertig. (Von 1560 bis 1842 hat man aber nicht weitergebaut.)
2. Nur wenige Jahre nach dem Tod Wilhelms I. hat man in Berlin die Kaiser-*Wilhelm-Gedächtniskirche gebaut.* Heute ist die Ruine des Kirchturms ein Denkmal für den Frieden.
3. Das ist die Sankt-Michaeliskirche in Hamburg. Die Hamburger nennen sie einfach den „Michel". Auch der Hafen ist ein Wahrzeichen dieser Stadt.
4. Das Hofbräuhaus braut schon seit 1589 Bier, aber das Gebäude ist vom Ende des 19. Jahrhunderts. Bis zu 30000 Gäste pro Tag trinken hier ihr Bier und singen: „In München steht ein Hofbräuhaus."
5. *In Dresden steht der Zwinger*, ein Barockschloss aus den Jahren 1710 bis 1732. Nach dem Krieg war der Zwinger zerstört, seit 1964 kann man ihn wieder besichtigen.
6. Der Zeitglockenturm, „de Zytglogge", wie die Schweizer sagen, steht in der Altstadt von Bern. *Jede Stunde* kommen die Touristen und bewundern die astronomische Uhr.
7. Dieses Riesenrad im Wiener Prater hat der Engländer W. B. Basset in nur acht Monaten gebaut. Es ist 61 Meter *hoch. Im Juni 1897 sind die Wiener* zum ersten Mal darin gefahren.
8. Frankfurt am Main ist nicht nur als Messestadt berühmt. Frankfurts Wahrzeichen ist der Römerberg mit seinen historischen Häusern. Der „Römer" ist der Sitz des Stadtparlaments.

7. **Bilder und Texte – was passt zusammen?**

Bild	A	B	C	D	E	F	G	H
Text								

<그림 3.1-1> 사실적 지역사정의 예1)[20]

첫 번째 예1)에서는 독일의 유명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Wahrzeichen)에 대한 짧은 텍스트 설명과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사진자료를 통하여 주어진 텍스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도시와 유명한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 이처럼 사실적 지역사정은 사진 이외에도 그림, 그래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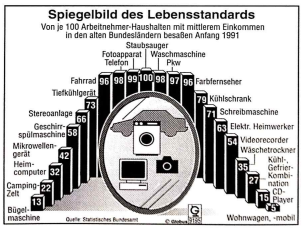
19) Huneke, H./Steinig, W.,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ühlrung*, Berlin: Erich Schmidt Verlag, 2000, 59.
20) Aufderstraße, H. u.a., *Themen aktuell 1*, Max Hueber Verlag. 2003, 122.

Ende des Wachstums?

Aber woher soll Wachstum noch kommen? Die wirtschaftswissenschaftlichen Institute meinen damit ja nicht hier und da mal ein Prozent Zuwachs des Bruttosozialprodukts. Um Vollbeschäftigung zu erreichen, müßte Westdeutschlands Wirtschaft Jahr für Jahr um sechs Prozent wachsen.

Die Gründe dafür sind ganz simpel. Zumindest der vom Arbeitsplatzrisiko betroffene kleine Mann versteht sie sofort. Er nämlich kann das Ende des wilden Wachstums im eigenen Haushalt ablesen: Dort finden sich Kühlschrank, Waschmaschine, Automobil, Küchenmaschinen, Fernsehapparat, alles schön nacheinander angeschafft. Jeder einzelne Gegenstand steht für jeweils einen neuen Wachstumsschub der Volkswirtschaft, dem regelmäßig der nächste gefolgt war.

Aber seit einigen Jahren sieht der kleine Mann auf dem Konsumgütermarkt nicht mehr viel Neues, was er unbedingt kaufen müßte. Die großen Märkte der Konsumgüter, folgt daraus, sind gesättigt, und attraktives Neues gibt es kaum.



<그림 3.1-2> 사실적 지역사정의 예2)[21]

두 번째 예2)는 독일의 생활수준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도표이다. 학습자는 이를 통하여 독일인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는 생활수준 향상의 원인과 영역별에서 나타나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2)는 도표가 함께 주어져 있어 시각적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나, 사실적 지역사정은 때때로 긴 문장의 텍스트만 제시되는 형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개 독일어를 처음 배우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는 문장의 구성이 복잡한 긴 문장들과 어휘를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형식의 사실적 지역사정은 학습자의 언어학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전달의 차원에서도 학습자의 오해를 일으켜, 사실적 지역사정의 학습목표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실적 지역사정은 앞의 예에서 본 것과 같이 문법적인 부분, 높은 수준의 문화와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단원의 주제와 상관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는 사실적 지역사정을 통해 문법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외국어 수업에서 전달받지 못한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반면

21) Schumann. J., *Mittelstufe Deutsch*, Verlag für Deutsch, 1998, 178.

에 사실적 지역사정은 정보전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참여가 필요한 능동적인 과제활동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실적 지역사정에서는 단지 문법적 사항을 정리하거나 이를 통한 문제 풀이, 문장의 구성과 어휘 학습, 또는 읽기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가 주어진 사실들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실적 지역사정에서 다뤄지는 주제와 내용들을 통해 학습자가 의사소통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타문화를 이해하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학습자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역사적 사실들, 지역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지역사정의 내용을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에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독일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주제와 내용은 사실적 지역사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적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목표언어국가와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한정된 학습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정의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없고, 때로는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학습자의 어학 수준이 필요하다.

사실적 지역사정 방안은 외국어 수업에 남아있는 언어 전달의 원리에서 비롯되었으며, 학습자에게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22] 하지만 이는 문법 위주의 교육과 지루한 주제들이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수준의 텍스트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도록 자료의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며, 언어학습에 재미를 더하여 학업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학습매체의 사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의사소통적 지역사정

70년대 외국어 교육에서는 이전의 보수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개혁이 일어났다. 따라서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지향되었다. 언어학습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창조적으로 학습

22) Rösch, H., *Deutsch als Zweit- und Fremdsprache*, Berlin: Akademie Verlag, 2011, 131.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면서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독일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교육대상의 수준도 낮아졌다. 이후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도구로 인식되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는 의사소통의 목표와 과정, 실제적 대화상황, 화자와 대화 상대를 고려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이해능력, 문맥적 상황에 맞는 적합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적 능력은 학습자의 내적인 언어능력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사회적, 문화적 지식과 관련된 언어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의사소통적 능력은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비판적 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23]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지역사정은 일상생활에서 언어행위를 뒷받침 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 교수법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학습자가 예상하는 상황을 해당외국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빨리 영향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24]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이러한 언어적 행위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지식(Kontextwissen)으로서 역할을 한다. Schmidt는 지역사정을 독립된 학문이 아닌, 기존의 언어 및 문학수업에 통합된 '배경지식'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언어적 표현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소여(所與)의 총체가 인지구조 속에 축적되어 사용가능하도록 형성된 의식"[25]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목표언어국가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행해지고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목표언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걸친 정보를

---

23) Stang, H. D., *Pragmadidaktik im Fremdsprachenunterricht*, Heidelberg: Julius Groos Verlag, 199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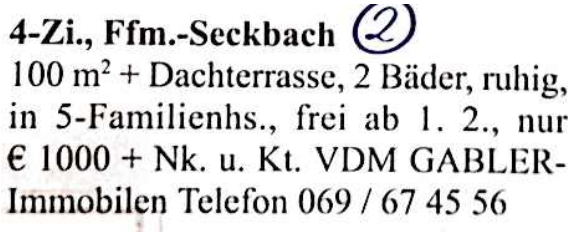
24) Huneke, H./Steinig, W.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iihrung*, Berlin: Erich Schmidt Verlag, 2000, 156.

25) Schmidt, S. J., Was ist bei der Selektion landeskundlichen Wissens zu berücksichtigen? In: Wierlacher, A.(Hrsg.), *Fremdsprache Deutsch*, München, Verlag W. Fink, 1980, 290.

학습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펼쳐 나갈 수 있다. 즉, 의사소통적 지역사정 학습은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요소인 언어적 행위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적 교수법 안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은 주로 실제 의사소통에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와 표현들이 주를 이룬다. 즉,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대화의 소재는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이 될 수 있다.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표정, 몸짓 등과 같이 비언어적 요소와 그와 관련된 배경지식들이 모두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의 요소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지불하는 방식, 독일인이 가진 정확성에 대한 인식 또는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하는 상황 등이 될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실제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할 때, 일반적으로 사실적 지역사정에서 다룬 내용들이나 문법적인 사항들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사실상 실용적이지 못하다. 사실적 지역사정에서는 학습자에게 일상생활의 문화보다 고급문화인 역사, 문학 또는 지리 등과 관련된 지식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이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은 물건을 환불한다거나 누군가의 초대를 받은 경우에 적절한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확실함을 판단하기에 더 유용하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을 찾아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4-Zi., Ffm.-Seckbach (2)
100 m² + Dachterrasse, 2 Bäder, ruhig,
in 5-Familienhs., frei ab 1. 2., nur
€ 1000 + Nk. u. Kt. VDM GABLER-
Immobilen Telefon 069 / 67 45 56

<그림 3.2-1>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의 예1)[26]

위의 예1)에서는 학습자는 방 구하기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대다수가 주어진 정보를 모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학습자가 임대인과 방을 계약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 볼 때, 학습자가 겪게 될 상황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독일의 주거형태나 방을 구하는데 사용되는 특정한 언어적 표현, 용어(예: 4-Zi., frei 1. 2. ab, NK)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위의 정보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면, 당황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학습자는 먼저 독일의 주거형태와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1)에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대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Wie viele Zimmer hat die Wohnung?
- Ist sie mit oder ohne Möbel?
- Wie hoch ist die Miete mit Heizung?

학습자는 위의 문장과 같은 독일어 표현을 일반적으로 독일어 어학교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학습목표는 학습자가 단지 언어를 문자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특정상황에서 학습자가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올바른 언어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안에서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문화적으로 깊이 정착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어적, 맥락적 의미를 인식하게 도와준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몇 가지 단어, 은유적, 관용적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27] 마침내 학습자는 대화 속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여 빠르게 언어적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반영된 수업은 암시적인 성격을 띤다. 이것은 학습자가 문법과 같은 언어적 규칙에 주의하지 않고, 특정상

---

26) Aufderstraße, H. u.a., *Themen aktuell 1*, Max Hueber Verlag, 2003, 62.

27) Huneke, H./Steinig, W.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ührung*, Berlin: Erich Schmidt Verlag, 2000, 57.

황에 의존하여 의도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28]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학습자 중심이라는 관점의 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학습자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학습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동기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외국어 수업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지역사정을 위한 자료와 학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예로, 지역사정을 위한 테마와 주제가 학습자의 요구와 논의를 거쳐 결정되면서 학교를 벗어난 외부적인 상황과 관련된 테마가 다루어졌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은 의사소통적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위와의 관계에서 특정 용어를 사용할 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체화시켜 준다.[29] 두 가지 측면에서 학습자는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을 통해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언어적 행위와 일상문화의 현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이 갖는 언어학습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효과는 배제될 수 없다.

3.3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어 교육에서는 언어적, 문화적 관계를 이어주는 개념을 중심으로 상호문화적 교수법이 중시되었다. 1975년대를 전후한 구청각/시청각 방법, 그 이후 80년대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방법에 이어 곧 90년대에 주를 이루게 된 상호문화 방안의 순으로 외국어 교수법 발달의 흐름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30] 따라서 가장 최근에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수법은 “상호문화적 방안(der inter-kulturelle Ansatz)”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각 나라간의

---

28) Rösch, H., *Deutsch als Zweit- und Fremdsprache*, Berlin: Akademie Verlag, 2011, 72.

29) Pauldrach, A., Eine unendliche Geschichte. Anmerkungen zur Situation der Landeskunde in den 90er Jahren, In: *Fremdsprache Deutsch 6*, 1992, 7.

30) Neuner, G./Hunfeld. H., *Methoden des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s*, Langenscheidt,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교수 방법론, 이광숙/이성만 옮김, 한국문화사, 1996, 197.

교류가 빈번해 지고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뤄진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서, 상호문화적 교수법은 유럽국가 내 이민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 주의적 가치관의 요구와 수용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60-70년대에 많은 노동이민자들이 독일의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독일로 유입되었고, 그들은 동시에 문화적인 충격과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EU 통합에 따른 탈 국가주의 현상에 따라 상호문화 이해 내지 학습과 외국어 교수법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31]

외국어 학습에서 상호문화적 교수법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중요시 하는 실용적, 기능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정신적 교육에 의미를 더 부여하며, 학습자의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교수법에서 지역사정의 목표는 학습자가 지역사정을 통해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와 비교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의 언어구사 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내재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참된 의사소통을 실현하는 것이다.

상호문화적 교수법에서는 학습자의 문화적인 경험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 상호문화 간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중요시한다.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을 통하여 낯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타문화를 더 깊은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다. 동시에 학습자는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학습자는 타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찰과정을 통하여 수용해야 한다. 상호문화적 능력은 더 이상 타문화적 표현방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섦과 자신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다.[32] 이것이 실현될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의 본래 문화를 더 잘 이해

---

31) 정시호, 독일어 교수법으로서의 상호문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2집, 1997, 71.

32) Meißer, F.J./Bär, M., Didaktik des Fremdverstehens/Interkulturelles Lernen in Lehrwerken des Spanischunterrichts, In: Bredella, L./Christ, H.(Hrsg.), *Fremdverstehen und interkulturelle Kompetenz*, Tübingen: Narr Francke Verlag, 2007, 115.

하고 배울 수 있으며, 타문화와 자신의 문화사이의 타협과 공존을 이룰 수 있다.

지역사정 연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던 “Die Deutschen in ihrer Welt”의 저자 Mog/Althaus는 지역사정이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을 상호문화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정을 통해 역사, 정치적 구조와 더불어 타문화에서 오는 낯섬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정 학습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타문화의 일상생활과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가운데 독립적인 통찰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외국어교사 또는 지역사정 교사들 사이에서 백과사전식 상의 수준에 이르는 지식만을 학습자에게 전해 준다면, 그들의 과제는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33] 즉,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이 아니라, 더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허물고 목표언어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앞서 살펴본 상호문화적 교수법과 지역사정에 대한 이론을 기반으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Arbeitsauftrag “Deutsch-französische Freunde”
Hat euer Heimatland auch eine ganz besondere Beziehung zu einem anderen Land? Berichtet darüber. Wenn ihr aus Frankreich kommt, erzählt der Gruppe etwas über eure persönlichen Erfahrungen mit Deutschland. Versucht außerdem die Frage zu beantworten: Was ist das Besondere an der Freundschaft zwischen den Ländern?

<그림 3.3-1>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의 예)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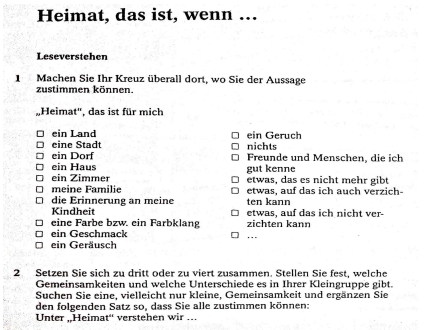
위의 예1)은 “Deutsch-französische Freunde”란 제목의 기사에 주어진 과제활동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기사를 이용하여 수업에서 상호문화적

33) Mog, P./Althaus, H.J., *Die Deutschen in ihrer Welt. Tübinger Modell einer intergrativen Landeskunde*, Berlin: Langenscheidt, 1992, 9.

34) Grathwohl, D./ Gassen, A., Deutsch-französische Freunde, Deutschwelle, 2012년 5월 18일, http://www.dw.de/DWelle_WSSearch/dynamic/search.seam?from=&to=&id=265&structure=265&actionMethod=dynamic%2Fglobalsearch.xhtml.

지역사정의 학습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 독일의 전통적인 풍습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리고 그룹을 지어 자기나라의 풍습을 소개해 보자.
- 역사적으로 프랑스와의 교류에서 기억될만한 사건이 있는가?
- 우리는 독일어권 나라들과 어떤 관계(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에 놓여 있는가?



Heimat, das ist, wenn ...

Leseverstehen

1 Machen Sie Ihr Kreuz überall dort, wo Sie der Aussage zustimmen können.

„Heimat", das ist für mich

- ☐ ein Land
- ☐ eine Stadt
- ☐ ein Dorf
- ☐ ein Haus
- ☐ ein Zimmer
- ☐ meine Familie
- ☐ die Erinnerung an meine Kindheit
- ☐ eine Farbe bzw. ein Farbklang
- ☐ ein Geschmack
- ☐ ein Geräusch
- ☐ ein Geruch
- ☐ nichts
- ☐ Freunde und Menschen, die ich gut kenne
- ☐ etwas, das es nicht mehr gibt
- ☐ etwas, auf das ich auch verzichten kann
- ☐ etwas, auf das ich nicht verzichten kann
- ☐ ...

2 Setzen Sie sich zu dritt oder zu viert zusammen. Stellen Sie fest, welche Gemeinsamkeiten und welche Unterschiede es in Ihrer Kleingruppe gibt. Suchen Sie eine, vielleicht nur kleine, Gemeinsamkeit und ergänzen Sie den folgenden Satz so, dass Sie alle zustimmen können:
Unter „Heimat" verstehen wir ...

<그림 3.3.-2>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의 예2)[35]

예2)에서 역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요소를 찾을 수 있다. 고향(Heimat)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통하여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속에서 이해된 그 단어의 개념과 함의를 비교할 수 있다.

학습자는 위의 두 가지 예에서 제시된 타문화와의 차이점을 중립적 사고를 통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의 주제는 학습자가 자기 문화의 사고방식과 행위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역사정을 통해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거나 타문화를 맹목적인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감하는데 필요한 상호문화적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호문화적 교육은 학습자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교의 과정을 통하여 타문화가 가진 사고와 가치관, 행동체계를 이해하고, 자기 문화의 중심체계로 통합하는 것이다. 한 사회 내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35) Biechele, M./Padrós. A., *Didaktik der Landeskunde*, Fernstudienheit 31, München u.a., 1999, 102.

인식과 가치 체계에서 뚜렷한 특징으로 형성된 중심체계를 기준으로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갖는다. 따라서 이 구성원들은 한 사회에 속한다고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고, 사회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36] 다시 말해서, 학습자는 이러한 공동체적 소속감을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을 통해 학습자는 타문화에 공감하게 되며, 보이진 않지만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을 통한 교육으로 인하여 타문화 속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적 능력을 위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수업의 방안에 대하여 Pauldrach는 4가지 수업 방식을 제시하였다.[37]

첫째, 교수법적 측면에서 어휘 학습은 대조과정을 통하여 단편적인 의미만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어휘는 다양한 측면에서 모국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어휘학습은 단순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독일의 문화에 대한 인상을 더해 줄 수 있다. 실제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학습일지라도 DaF 수업의 학습 자료로서 사용되는 기사, 문학 텍스트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어휘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통해 상호문화적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수업에서 학습자는 어휘를 이용하여 단지 목표 언어국가의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찾고 비교하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사이에서 이해되는 어휘의 차이와 유사점을 통해 공동 의식을 느끼고, 때로는 포용적인 시각으로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36) Thomas, A., Psychologie interkulturellen Lernens und Handelns, In: Thomas, A.(Hrsg.), *Kulturvergleichende Psychologie,* Göttingen: Horgrefe Verlag für Psychologie, 1993, 17-18.

37) Pauldrach, A., Eine unendliche Geschichte. Anmerkungen zur Situation der Landeskunde in den 90er Jahren. Fremdsprache Deutsch 6, 11f, Heyd, G., Heyd, G., *Aufbauwissen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DaF). Ein Arbeitsbuc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97, 38에서 재인용.

두 번째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의 내용으로서, 일상문화인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일상문화는 학습자의 감각적, 경험적 세계와 관계를 맺는데 적합한 영역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이미 경험한 일상문화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일상문화와 관련된 지역사정을 자신의 선행 경험과 관련을 맺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일상문화에 대한 특정한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셋째,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수업은 학습자의 경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이미 경험한 사실들은 타문화 속에서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학습자 자신의 자국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한 주체성은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즉, 자신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 진공의 상태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은 존재할 수 없다.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비교과정 속에서 두 가지 입장에 서게 된다. 이는 자기 자신의 문화 속에서 고유한 자신을 인식하는 '나'와, 그것을 바탕으로 낯섦을 바라보는 '나' 자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는 목표언어국가의 지역사정 내용을 접할 때, 단순히 목표언어국가의 시선으로 타문화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학습자의 선행 경험은 학습자가 타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비교할 때, 자신의 문화와 거리를 둘 수 있게 도와준다. 따라서 학습자는 타문화의 특징들을 반영하는 데 있어 거리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은 단지 언어적 학습을 강조하거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목표언어국가의 문화적 특징과 상을 그릴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인지하고 변화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감각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탐색

(Erkundung)과 같은 전략을 통하여 학습자는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할 수 있다.[38] 이것은 학습자에게 지역사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학습자는 탐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학습자와 토론을 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는 감각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자신 스스로를 관찰하게 되며, 자료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감각적인 학습전략을 통하여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학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외국어 학습에서 중시해 왔던 목표국가의 실용적 측면의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넓은 의미의 참된 의사소통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 이론

4.1 지역사정의 주제영역

외국어로서 독일어 분야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에 대한 연구는 의사소통적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해 지면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들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학습자는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목표언어국가에서 있음직한 상황에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과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일상생활의 주제영역은 목표언어국가의 주거, 음식, 생활방식, 가치관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모습을 반영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유용했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 실행되면서, 이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비롯한 수업 관련요소들이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사의 결정과 의도가 많이 반영되었던 이전의 외국어 수업과 달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국어 학습에 필

38) Heyd, G., *Aufbauwissen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DaF). Ein Arbeitsbuc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97, 41.

요한 주제영역과 방법들을 체계화 하는 연구가 행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80년에 발간된「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39] 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학습 자료의 제공을 위해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필요한 주제영역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적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역사정을 제공해 주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책에 제시된 다양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내용은 그 동안 자료의 부족으로 아쉬움을 느꼈던 학습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정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주제 영역	내용
1	인물에 대한 정보 (Personalien; Information zur Person)	이름(Name), 주소(Adresse), 출생일(장소)(Geburtsdatum, Geburtsort), 종교(Religion) 등
2	주거 (Wohnen)	주거형식(Art der Wohnung), 주거공간(Räume), 임대, 비용(Miete, Konsten) 등
3	환경 (Umwelt)	지역, 도시, 국가(Gegend, Stadt, Land), 동식물(Tiere, Pflanzen), 기후, 날씨(Klima, Wetter) 등
4	여행과 교통 (Reisen und Verkehr)	방향(Orientierung), 대중교통(Öffentli-cher Verkehr), 일상의 교통수단 (Alltägliche Wege/Fahren)
5	부양 (Verpflegung)	음식, 음료, 식사시간(Essen, Trinken, Mahlzeiten), 식품, 식사(Nahrungs-mittel, Speisen), 레스토랑, 카페 (Restaurant, Café) 등
6	구매와 생필품 (Einkaufen und Gebrauchsartikel)	쇼핑, 상점(Einkaufen, Geschäfte), 가격, 지불(Preis, Bezahlen), 약국, 약품 (Apotheke, Medizin) 등
7	공공 및 개인 업무수행 (öffentliche und private Dienstleistungen)	우체국(Post), 전화(Telefon), 은행(Bank), 경찰(Polizei), 자동차 응급 수리(Pannenhilfe) 등
8	건강과 위생 (Gesundheit und Hygiene)	신체부위(Körperteile),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Physisches und psychisches Befinden), 질병과 사고(Kankheit,

		Unfall) 등
9	인지와 운동 (Wahrnehmung und Motorik)	감지(Sinnliche Wahrnehmung), 몸동작(Körperstellung, -bewegung)
10	일과 직업 (Arbeit und Beruf)	직업(Beruf), 직장(Arbeitplatz), 임금(Lohn), 직업교육(Berufsausbildung)
11	교육/학교 (Ausbildung/Schule)	학교와 학업(Schule und Studium), 학과(Unterrichtsfächer), 시험, 학위(Prüfungen, Diplome)
12	외국어 (Fremdsprache)	의사소통(Verständigung), 언어의 숙달(Sprachbeherrschung)
13	여가와 오락 (Freizeit und Unterhaltung)	여가활동/흥미(Freizeitbeschäftigung/ Interessen), 극장, 영화관, 콘서트(Theater, Kino, Konzert. etc), 스포츠(Sport), 라디오/텔레비전(Radio/Fernsehen), 독서/신문, 잡지 (Lektüre/Presse)
14	개인적 관계와 접촉 (persönliche Beziehungen und Kontakte)	개인적 관계의 종류(Art der persönli -chen Bezieung), 초대/작별 (Einladung/Verabredungen), 서신(Korrespondenz), 단체(Verein)
15	현실: 일반적인 관심사와 테마 (Aktualität: Themen von allgemeinem Interesse)	실제사건(aktuelles Geschehen), 생활환경, 경제, 사회 (Lebensverhältnisse, Wirtschaft, Soziales), 정치(Politik)

<표 4.1-1>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에 제시된 주제영역[40]

위의 표에서 제시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들은 인간의 생활 영역의 기본적 범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책에 제시된 지역사정의 주제별 목록은 외국어 수업에서 단원의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역사정을 전달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이 밖에도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 튀빙겐 모델(Tübinger Modell)을 언급할 수 있다. 1986년에 사회학

39) Baldegger, M./Müller, M./Schneider, G.,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 Berlin u.a., 1980.

40) Baldegger, M./Müller, M./Schneider, G.,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 Berlin u.a., 1980, 30-37.

자, 역사학자, 독문학자, 인류학자, 정치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결과로서「Die Deutschen in ihrer Welt」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이 책의 지역사정 내용은 독일과 미국의 체제를 비교하는 시각에서 쓰여 졌으며, 이를 주제영역과 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튀빙겐 모델은 사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지역사정 자료들은 전문성을 띠고 있다. 튀빙겐 모델은 지역사정 연구가 학제간의 공동연구로 이루어져야 전문성과 체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41]

한국의 독일어 교재에서 다뤄지는 지역사정의 주제영역 역시 다양한 문화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중 독일어과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교과과정을 살펴볼 때,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다. 하지만 '문화적 내용' 에 따른 기준을 살펴보면, 독일어권 국가의 일상생활과 국가의 사회, 지리, 경제, 문화유산 등과 같은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고 문화적 내용에 맞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하여 이러한 문화적 내용을 크게 일상생화 문화와 사회 문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교과과정에서 제시하는 일상생활 문화의 내용은

⑴ 인사와 소개에 관한 내용: 인사 나누기, 안부 묻기, 자기 및 타인 소개하기, 바른 호칭법 등

⑵ 개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 가족 관계, 가족 내 의사소통, 하루 일과 등

⑶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과목, 수업 시간, 선생님, 교우 관계, 동아리 활동 등

⑷ 취미와 여가활동에 관한 내용: 운동, 춤, 음악, 독서, 컴퓨터 게임 등

⑸ 일상적 생활에 관한 내용: 식생활, 주거 생활, 의복, 물건 사기, 날씨 등

⑹ 사회적 관습에 관한 내용: 초대와 방문, 선물, 약속, 작별, 대화 및 행위

41) 김미승, 독일어 교육에서 문화 및 지역사정 교육의 의미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이문화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관점에서 -, 독어교육 제 26집, 2003, 63.

규범 등
(7) 여행, 교통에 관한 내용: 교통수단, 숙박, 차표 구입, 여행지, 길 안내 등
(8) 통신 수단에 관한 내용: 전화, 편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이어서 사회 문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에 관한 내용: 가족생활, 여가생활, 학교생활, 교우 관계, 식사 습관 및 예절, 주거, 의복, 쇼핑, 관공서 이용 등
(2) 제도 문화에 관한 내용: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통, 복지, 의료, 언론, 체육, 환경보호, 정보통신 등
(3) 역사 및 지리 문화에 관한 내용: 자연환경, 민족성, 가치관, 주요 도시 및 관광지, 저명인사. 독일어 사용국가, 유럽 연합, 독일의 분단 및 통일 등
(4) 예술 문화에 관한 내용: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오페라, 축제, 문화유산 등
(5) 언어문화에 관한 내용: 이름, 격언, 제스처, 전문용어, 상징과 비유, 문학 등[42]

이처럼 한국의 외국어 교육의 교과과정에서도 독일어 교과서의 지역사정 주제영역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재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한국의 현 실정을 고려하여 주제영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한국 학습자의 기호에 더욱 잘 부합할 것이다.

4.2 지역사정의 전달방식

학습자가 수업에서 독일어를 배울 때, 교사와 교재에서 어떻게 지역사정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사 또는 교재의 측면에서 독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학습자가 독일에 대한 호감 또는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지역사정의 전달방식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

42)http://cutis.mest.go.kr/NTC/view.-jsp?gCd=S02&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14&pnum=1&cnum=0&src=&srcTemp=&pageSize=10&cPage=3&no=56,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별책 16】, 2012월 12월 18일 접속.

필자는 먼저 교재의 측면에서 연구한 Ammer의 이론을 제시한다.

Ammer는 교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의 전달방식을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43]

첫 번째는 지역사정을 여러 주제로 구분하고 사실 그대로를 모방하여 제시하는 방식(Die typisierend imitatorische Präsentationsweise)이다. 이 전달 방식에서는 지역사정에 대한 배경이나 문제점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사정 그대로를 구체적이면서도 세밀하게 모방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목표언어국가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이 전달방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거나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독일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 전달방식은 주제 영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관련성 없는 지역사정 내용의 등장으로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학습의 동기를 꺾을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적다.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지역사정의 내용을 학습할 때, 학습자는 이를 연결하여 학습하게 됨으로써, 흥미를 느끼고 해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방식은 DaF 교재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달방식이며, 주로 평이하게 다룰 수 있는 '가족, 주거, 식사, 건강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다.

두 번째는 독일 사회의 표준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는 방식(Die normativ-dokumentarische Präsentationsweise)이다. 이 방식은 우리가 독일어 교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표나 그래프를 함께 제시하는 형식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 전달방식에서 제시되는 도표와 그래프, 원문(Originaltext)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독일 사회의 한 단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인상을 얻을 수 있다. 이 전달방식의 목적은 독일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을 낯

43) Ammer. R, Das Deutschlandbild in den Lehrwerken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ast, B./Neuner, G.(Hrsg.), *Zur Analyse, Begutachtung und Entwicklung von Lehrwerken für den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 München, 1994, 37이하 참조.

선 독일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세 번째는 독일을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방식(Die affirmativ exklamtorische Präsentationsweise)이다.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을 나타내는 방식에 따라서 학습자는 이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식에서는 학습자에게 독일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주기 때문에 학습자가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나 독일 사회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내용, 또는 높은 가치로서 평가되는 내용들을 다룬다. 학습자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독일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업적 욕구를 느낄 수 있다.

네 번째는 특정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방식(Die problemorientierte Präsentationsweise)이다. 여기에서는 독일사회 안에서 부각되는 특정 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학습자가 독일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독일인들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학습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초대를 하거나 병원방문, 공공기관의 일처리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이러한 지역사정의 학습을 통해 독일사회의 규범과 상황에 맞춰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방식은 비판적이고 자립심 함양을 위한 전달방식(Die kritisch-emanzipatorische Präsentationsweise)이다. 이 방식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독일의 지역사정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선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때문에 교재를 만드는 저자와 편집자는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잘 고려하여 지역사정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전달방식에서 학습자는 지역사정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독일사회와 독일인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다.

Ammer와 달리 Grawe는 지역사정의 전달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

다.[44] 첫째는 지역사정을 언어 수업의 한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외국어 수업의 목적은 언어습득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학습 목표와 분위기 속에서 지역사정은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국민의 특성, 사상이 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언어 뒤에 숨겨진 고유한 의미를 통해 이러한 지역사정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교사는 언어 습득과정에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지역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지역사정의 내용을 언어수업에 관계없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역사정에 대한 주제는 다양하다. 각 수업시간마다 다양한 지역사정을 주제별로 다루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독일인의 주거문화, 독일통일의 역사과정, 독일의 교육제도 등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 이 전달방식은 언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고, 자료 수집과 발표를 통하여 학습자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교사는 지역사정을 학습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문학작품을 통해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학 텍스트를 읽다보면, 글을 통해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반응은 문학 텍스트 속에서 예술적으로 묘사된 작품의 주제와 언어의 지시적 관계에서 나오게 된다. 이처럼 문학작품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성향이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사정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문학 텍스트의 많은 분량을 다루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되도록이면 학습자가 문화, 언어 등 지

---

44) Grawe. C., Die kulturanthropologische Dimension der Landeskunde: Zu Verständnis und Kritik des Landeskundebegriffs. In: Wierlacher. A.(Hrsg.), *Perspektiven und Verfahren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München: indicium Verlag, 1987, 461-468.

역사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쉽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학습을 지도해야 한다.

Grawe는 지역사정은 교사의 측면에서 직접적, 간접적, 문학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Grawe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나, 필자의 생각에 이 전달 방식은 교수법 또는 지역사정의 주제에 따라 직접적, 간접적 전달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rawe가 제시한 전달방식과 비교했을 때, Ammer의 방식은 좀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섯 번째로 제시된 비판적, 자립심 함양을 위한 전달방식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징을 띠고 있어 의사소통적,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 적합할 것이다.

5.「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서의 지역사정

5.1 교재의 구성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재는「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이다.「Schritte international」은 2006년에 발간된 독일어 어학 교재이며, 현재 총 6권으로 주교재와 Arbeitsbuch이 한데 묶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한 권에 각각 7개 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서 학습자의 어학학습에 적합한 상황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단원은 A-B-C-D-E-Grammatik-Zwischenspiel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Schri-tte international」은 유럽공통회의(GER)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1, 2권이 A1에, 3, 4권이 A2에, 5, 6권이 B1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주교재와 Arbeitsbuch의 분량이 약 80쪽 정도를 차지하며 1:1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Schritte international」의 1권의 내용은 인사말, 자기소개, 주거문화, 음식문화 등과 같이 초급 학습자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들이다. 마지막 6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충고와 조언, 불만제기, 독일의 정치와 역사, 최근의 사회적 주요 관심사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Schritte international」시리즈 전권을 학습하게 될 경우, 학습자는 외국인이 독일어

권 국가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정을 습득할 수 있다.

교재의 각 단원의 초반에서 학습자는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듣게 된다. 이는 학습자가 듣기를 통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단원에 대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전단계이다. 학습자는 이 에피소드를 통하여 앞으로 단원에서 배우게 될 문법, 어휘, 상황에 필요한 대화표현을 예상할 수 있다. 「Schritte international」의 구성은 이러한 워밍업 과정을 시작으로 주제와 관련된 표현과 어휘, 지역사정의 내용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의 후반에 이러한 언어학습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문법적인 사항이 잘 요약되어 있다. 또한 단원의 맨 마지막 장은 본 교재의 특징이며, 지역사정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Zwischenspiel」이다. 각 단원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Zwischenspiel」은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지역사정 내용을 전달하며, 재미있는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Zwischenspiel」에서는 현재 젊은 세대와 독일어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성 친구, 비언어적 표현, 여가시간과 같은 주제영역들을 다루고 있다.「Zwischenspiel」에 나타난 지역사정 주제는 간혹 각 단원의 관련성에서 독립적인 경우도 있으며, 독일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을 포함한 독일어권 국가의 지역사정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Schritte International」의 Ⅰ-Ⅵ권에서 나타나는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Schritte international Ⅰ-Ⅵ」권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사정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을 밝힌다.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재는 1권부터 6권까지 각 2권씩 A1, A2 그리고 B1에 단계에 해당된다. 여기서 두 권의 교재 단원번호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6권은 총 42단원으로 이루어지며 교재 2권당 14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 단원의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면, 제시된 표와 같다.

단 계	구 성	내 용
Lektionaufbau	사진+듣기	주제관련 에피소드와 듣기 + 주제별 상황과 관련된 사진 삽입
	⇩	
A	단원/주제	단원명, 관련 주제 제시
	⇩	
B	어휘/문법	단어와 문법에 대한 학습
	⇩	
C	연습/과제	- 주제 관련 상황에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 - B의 과정에 기초한 표현, 어휘를 사용한 연습과 과제 활동
	⇩	
D	문법	언어표현에 사용된 문법 요약
	⇩	
E	듣기/말하기/쓰기/읽기	- 읽기 텍스트 제공 - 주제 관련 듣기 텍스트 제공 - 문법적 지식을 이용한 쓰기 연습 - 파트너/그룹과 말하기 연습
	⇩	
Zwischenspiel	지역사정/읽기 텍스트 제공	- “Zwischenspiel”: 지역사정 요소를 담고 있는 텍스트 제공 - 주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활동과제와 놀이를 학습자에게 제시

<표 5.1-1>「Schritte international」의 단원 구성

5.2 지역사정 분석

교재「Schritte international」에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제와 전달방식을 살펴본다. 분석대상 영역은「Schritte international」의 본문과 지역사정 요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원의 마지막 단계「Zwischenspiel」로 나누어 분석한다.

5.2.1 주제 분석

교재「Schritte international」은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따라서 필자는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의 내용을 교재「Schritte international」의 지역사정 주제를 분류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 내용에 따라 교재「Schritte international」에 실제로 나타난 지역사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를 통해「Schritte international」추가되거나 부족한 주제영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Schritte international」의 지역사정 주제 분석에 앞서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 내용을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지역사정의 내용	예
사람에 대한 정보	사람의 일반적 성격, 인종적 특징, 유명 인물 소개
주거	거실과 침실 구조, 임대정보
환경	기후, 자연환경
여행과 교통	명소, 관광지도
식사	아침 식사 습관. 요리법
물건 구입	상점에서의 대화
공적인 직무 수행과 사적인 일	시청에서 하는 일
건강과 위생	의사의 진찰, 위생에 대한 관념
운동	독일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직장	직장에서의 하루
교육	교육 제도
언어	언어의 특성, 특정상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
여가와 일상 대화	주말의 여가 생활
개인적인 관계와 접촉	친구 관계, 직장상사와의 관계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정치 상황, 경제 상태

<표 5.2.1-1>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 내용 분류 45)

위의 표와 같이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하는 지역사정 내용들은 15가지 주제영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이 실제로「Schritte international」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지와 특히 어떠한 주제영역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본문에 나타난 지역사정 주제 분석

이 장에서는 1권에서 6권까지 본문에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들과 교재 내용을 통해 지역사정의 주제를 분석해 본다.

<Schritte international Ⅰ>

1단원 14쪽(E1)에서 나타나는 지역사정 주제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이름, 나이, 성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단원에서 학습자는 자기 소개를 할 때 필요한 독일어 표현과 독일 사람들의 이름, 주소 등을 나타내는 형식을 배운다. 학습자는 1권 4쪽에 제시된 명함(Visitenkarten)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정을 습득할 수 있다. 학습자는 교재에 제시된 4장의 명함을 통해 독일 사람들의 이름, 주소형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습자는 주어진 명함을 가지고 사람의 이름은 노란색, 성은 파란색, 그리고 주소는 빨간색, 국적은 녹색으로 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미 첫 장의 명함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학습자는 이것을 참고할 수 있다. 학습자는 실제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된 나머지 5장의 명함에서 성, 이름, 주소, 국적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세부적인 언어적 표현과 형식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독일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주소 형식은 매우 다르다. 학습자는 독일인의 성과 이름 중 어느 것이 앞에 쓰여야 옳은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소를 기재할 때, 작은 단위에서 큰

45)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Lernen, lehren, beurteilen, Goethe-Institut, 2012월 7월 12일, http://www.goethe.de/z/50/commeuro/303.htm. 위 표는 필자가 위의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었으며, 적절히 생각되는 예를 덧붙임.

단위로 써야 하는지 또는 그 반대로 써야 옳은 것인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는 사람에 관한 정보에 속하는 나이, 성별, 직업 등을 묻는 표현과 형식을 지역사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2단원 19(5번)쪽에는 본문의 초반에 시작하는 듣기활동이 주어져 있다. 듣기 텍스트에 등장하는 Anton과 Corinna는 둘 다 독일어를 구사하지만, Anton은 Deutsch를, Corinna는 österreiches Deutsch를 사용한다. 학습자의 대부분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이 세 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일어의 발음, 억양, 어휘를 접하는 기회는 드물다. 학습자는 듣기를 통해 같은 독일어이지만 억양과 발음이 다른 오스트리아식 독일어를 들어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독일어와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언어적 특성에 관한 주제는 3단원에서도 역시 등장한다. 29쪽에서는 Corinna와 Timo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내용은 Timo가 오스트리아에서 감자를 뜻하는 “Kartoffeln”을 “Erdäpfel”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혼란을 겪는 내용이다. Timo는 독일에서 사과를 Äpfel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상인이 말하는 Erdäpfel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과를 떠올리며 의사소통에 혼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곧 상인의 설명을 통해 단어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 상황을 통해 자신 역시 Timo와 같은 입장에 있음을 인식한다. 학습자는 같은 독일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따라서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특징을 지역사정을 통해 알 수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3단원 33(D3)쪽에서는 다양한 독일어권 국가의 식품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보여준다. 학습자는 다양한 식품의 사진과 이를 지칭하는 어휘를 함께 연상할 수 있다. 학습자는 연상되는 이미지를 통해 독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주재료와 음식문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맥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4단원 40쪽의(A3)과 43쪽(D4-c) 그리고 44쪽(E2)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지역사정 요소를 다루고 있다. 40쪽에는 유명인사 4명의 사진과 4개의

방 사진이 주어져 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는 각 인물들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Thomas Mann, Kaiserin Sissi, Johann Wolfgang von Goethe, König Ludwig”이다. 학습자는 유명 인사들의 지위와 업적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들을 알맞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방을 임대하는 광고와 별자리에 따른 방의 선호도를 나타낸 텍스트가 주어진다. 학습자는 광고를 통해 실제 독일어권 국가에서 방을 구하게 될 경우, 접할 수 있는 주거와 관련된 용어, 단어의 축약, 임대절차 등을 다룬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제공된 별자리에 따른 방의 선호도를 나타낸 텍스트는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5단원의 54(E1)쪽에서는 6가지의 광고가 듣기를 통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여기에서는 사진을 통해 실제 형식과 같은 간판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간판에 쓰여진 문구를 통해 상점, 공공기관, 병원, 여행사, 헬스클럽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문구의 형식, 운영시간의 차이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지역사정 정보가 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서 독일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으며, 상점들과 공공기관의 운영시간을 통해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표현문구, 운영시간 등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가 목표언어국가를 방문할 경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더하여 학습자는 독일어권 국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흐름과 생활방식에 더 잘 이해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다.

6단원의 61쪽(B3), 63쪽(D3)에 등장하는 지역사정 요소들은 여가시간에 대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61쪽에서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메뉴판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메뉴구성과 독일인의 식사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국적을 가진 Eva, Christian 그리고 Manuel이라는 3명의 친구가 쓴 편지가 주어져 있다. 이 글은 3명의 학생이 그들의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같은 또래의 독일어권 국가 학생들의 여가생활, 관심사 등을

이해할 수 있다.

7단원의 74쪽에서는 교육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텍스트가 주어져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Oleg Bondarenko”는 22살이며, 독일어를 2년 넘게 배우고 있다. 그는 독일에 체류하게 되면서 계속에서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그는 독일어 공부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독일어를 공부 하는 방법으로 독일어로 신문, 잡지 읽기, 독일영화 보기, 독일 웹사이트를 통한 읽기, 말하기 학습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학습자는 이 글을 읽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 학습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제시하는 독일어 학습방법을 실제로 이용해 볼 수 있다.

<Schritte international Ⅱ>

8단원 14(E1)쪽에서는 독일의 4가지의 직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사진과 함께 제시한다. 학습자는 양치기(Schafer), 게임 디자이너(Game-Designer), 인형극 배우(Puppenspieler), 자전거 배달원(Fahrradku-riere)이라는 독일의 직업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각 직업을 설명하는 글을 통해 하는 일과 특징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주어진 직업 중, 양치기 또는 자전거 배달원, 인형극 배우라는 직업은 학습자에게 생소할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독일어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은 학교를 가거나 출퇴근길에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 이러한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자전거 배달원이라는 직업이 존재하게 된 배경, 주로 하는 일 등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학습자는 직업에 대한 지역사정을 통하여 독일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이 직업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9단원의 제목은 “In einer fremden Stadt”로서, 이 단원에서는 여행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23(D1)쪽에는 빈(Wien)의 슈테판돔(Stephan

-dom)에 대한 여행책자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슈테판돔의 입장료와 관람시간, 그곳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지역사정은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의 지역사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10단원의 33(D1)에는 4개의 광고가 주어져 있다. 이 광고의 내용은 건강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학습자는 “Reisen ist die Therapie!”, “Lachen ist gesund!”, “Fit werden im Wasser”, “Entspannung im Winter”라는 4개의 광고표제를 통하여 각각의 광고가 추구하는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 광고에서 주어지는 텍스트를 통하여 건강을 위해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법과 건강에 대한 상식을 알 수 있다.

11단원에서는 교통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43(D1)쪽에는 비행기, 기차, 버스의 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실제 사용되는 교통시간표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독일의 교통수단의 체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단원의 주제 역시 교통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읽기 텍스트는 “Call a Bike”라는 제목으로 이는 독일의 국영철도회사인 “Deutsche Bahn”의 광고이다. 이 광고는 급히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화를 이용하여 각 도시의 설치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학습자는 일반적인 교통 체계 이외에도 사용되는 교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평소에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독일인들의 생활방식을 알 수 있다.

13단원의 62(C3)쪽에서는 “Christian Adam”이라는 자전거를 타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를 소개하고 있다. 학습자는 “Fahrrad fahren und Geige spielen”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통해 이 음악가가 자전거를 타며 연주하게 된 동기, 배경, 연주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

14단원의 72(C2), 73(D1)쪽에서는 일상대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초대라는 테마에서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결혼 청첩장, 파티초대장 등과 같이 다양한 텍스트를 보여준다. 초대라는 테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각 나라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학습자는 초대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초대 약속에 응하는 예절, 초대하는 주된 이유, 초대음식 등 타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사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chritte international Ⅲ>

1, 2단원에서는 일상대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제로 등장한다. 12(C3)쪽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글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역사정 요소들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안부인사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14(E1)쪽에는 룸메이트에게 남긴 친구의 쪽지가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는 이 쪽지를 통해 또래의 일상적인 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한 텍스트에 나타난 표현들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친구 사이에 쓰이는 언어적 표현도 익힐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는 지역사정 요소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표현들을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실제 대화에 참여할 경우,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하여 올바른 의사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다.

3단원에서는 독일인의 음식문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30(A2)쪽에는 “Morgen essen wie ein Kaiser, mittags wie ein König und abends wie ein Bettelmann.”이라는 제목의 읽기 텍스트가 주어져 있다. 이 제목에서 말해 주듯이 글의 내용은 독일인들이 보통 아침 식사를 풍성하게 먹으며, 점심식사는 아침보다 가볍게 먹고, 이에 반해 저녁식사는 아주 간소하게 먹는 그들의 식습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문화에 대

한 정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나라의 음식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학습자가 속한 문화적 배경이 독일의 음식문화와 대조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제시된 지역사정은 학습자에게 문화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3(D2)쪽에 소개된 Currywurst를 통해 학습자는 평소 독일인들이 즐기는 간식과 그들의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4단원의 43(D2)쪽 텍스트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학습자는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통해 세계에서 독일인이 갖는 여가시간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글에서는 조사 결과를 통하여 독일이 직업의 조건에서 쉬는 날이 주변국가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보다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학습자는 이를 통하여 독일 사람들의 일하는 환경, 풍부한 여가시간에 따른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독일의 근무환경, 노동조건, 복지조건 등의 살펴봄으로써, 독일인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여건, 보수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단원에서는 건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53(D3)쪽에서는 스키/스노우보드, 골프 강습을 위한 두 개의 광고가 제시되어 있다. 이 광고에는 강습 횟수와 강습비용과 같은 세부사항들이 실제와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다. 54(E1)쪽에서는 “Heimut Grassi”라는 운동선수에 대한 글을 싣고 있다. 그는 에베레스트를 3번이나 올랐을 정도로 극한 체험의 전문가로 소개되며, 학습자는 그가 제시하는 건강을 위한 조언을 읽어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의식과 가치관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와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다.

6단원에서는 교육에 대한 주제를 다루며, 독일의 학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62(C1)쪽에 나온 도표를 통하여 연령에 따른 독일의 학교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국의 교육 체계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64(E2)쪽에 주어진 읽기 텍스트에서는 한 여성이 생각하는 꿈의 직업에 대한 의견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개개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7단원에서는 축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73(D1/D2)쪽에서는 독일인들의 파티문화를 담은 사진과 이메일을 통해 파티의 즐거움을 담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파티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텍스트에 주어진 지역사정을 통해 파티음식, 대화주제, 파티에서 지켜야 할 예절 등 문화적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Schritte international Ⅳ>

8단원의 10쪽(A2), 13쪽(D3), 14쪽(E1)에서는 여가시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의 제목은 주말(Wochenende)이다. 여기서 학습자는 독일인의 주말활동과 그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메모와 행사 일정이 기록된 달력을 통해 독일인의 여가시간활동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메모의 내용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에게 할 일을 적어 놓은 것이다. 또한 달력에는 박물관 관람일정, 여름 학기의 시작, 베를린 카니발 등 주말 일정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는 두 가지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지역사정 정보를 통해 주말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지만, 이를 통해 독일인들의 생활방식과 관심 있는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즐기는 독일인의 생활방식과 활동적인 성격, 여행에서 즐기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하여 다양한 예술 공연을 쉽게 접하는 사회 분위기 역시 박물관, 음악회 관람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독일인들의 생활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9단원의 23쪽(D1)과 24쪽(E2)에 등장한 내용을 통해 학습자는 독일인들의 소비가 어느 영역에서 높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 주어진 항목은 임대료, 생활용품, 오락비용, 보험 등 다양하다. 또한 자신이 가진 물건에 대한 한 독자의 생각과 느낌을 읽기 텍스트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 어, 주방 용품부터 장난감, 스포츠용 물품에 이르기까지 그 영

역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은 학습자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역사정을 통하여 독일 사회의 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10단원에서는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30쪽(A3), 33쪽(D2), 34쪽(E2)에는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편지, 핸드폰 같은 매체를 통해 독일어권 국가의 지역사정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 사회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텍스트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어진 텍스트는 핸드폰에 사용에 대한 중독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핸드폰 중독의 정도에 따라 쓰이는 “Der Handy-Freak”, “Der Handy-Normalo”, “Der Handy-Hasser”와 같이 현재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유행어가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는 특정 영역에서 다양한 현 시대의 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일반적인 독일어 교재를 통해 이러한 어휘를 습득하기 어렵다. 학습자는 지역사정의 내용을 통해서 핸드폰, 스포츠, 팝음악 등과 같이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타문화 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 자신의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 있다.

11단원의 42쪽(C2)과 44쪽(E1)에서는 교통에 관한 지역사정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주어진 텍스트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교통에 대한 의견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역사정을 통해 독일인들이 느끼는 교통사고의 위험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교통이라는 주제는 독일인들 사이에서 이용되는 대중적인 교통수단과 법칙, 그리고 교통규칙을 어겼을 시 부과되는 벌금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교통규칙 준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12단원의 51쪽(B2), 52쪽(C3), 53쪽(D1)에서는 여행에 관한 주제를 다

루고 있다. 51쪽의 B2에서는 Schleswig-Holstein(독일), Salzkammergut(오스트리아), Lutzer(체코), Mecklenburger Seenplatte(독일)에서 유명한 여행 명소 사진을 보여준다. 더하여 각 국가의 명소와 이를 광고하는 4가지 여행상품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는 광고에서 소개하는 표현과 내용을 통해 여행지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여행광고 외에도 편지의 내용을 통해 각 여행지에 대한 아름다움과 느낌을 전해 주고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지역사정의 정보를 통해 여행지에 대한 지리적 환경, 기후 등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13단원의 58쪽(1), 64쪽(E1)에서는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카드 그림이 실제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또한 독일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인이 공공장소나 교통시설을 사용할 때 지불을 해야 하며, 은행의 현금 인출기 사용법,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돈을 지불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학습자는 주어진 사진을 통해서 실제 독일에서 사용되는 화폐인 유로(Euro)의 모양과 단위를 알 수 있으며, 독일 사회에서 돈이 사용되는 방식 돈에 대한 독일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마지막 14단원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이다. 72쪽(C3)에의 텍스트에서는 독일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애칭 표현과 이를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73쪽(D2)에서는 부부간의 싸움의 원인에 대한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74쪽(E2)에서는 “Frau Schulze”라는 66세 여성의 일대기를 6개의 시대로 분류하여 그녀가 살아온 일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정 내용은 독일인들의 일상적 측면을 다루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독일인의 생활방식과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Schritte international Ⅴ>

5권의 1단원에서는 ‘행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호천사(Schutzengel)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었다. 주어진 텍

스트에는 독일인들이 일상생활의 사건사고를 겪고 생각하게 되는 행운에 대하여 테마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테마 속에서 독일인이 생각하는 수호천사에 믿음을 엿 볼 수 있다.

2단원에서는 오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락'은 여가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오락과 관련된 주제를 통해 학습자는 독일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지 알 수 있다. 20쪽(1)에서는 유명한 영화 "Star-Wars"의 역사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26쪽(D1)에서는 여러 가지 장르에 따른 TV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학습자는 독일인들이 흥미를 느끼는 TV프로그램의 종류를 통해 독일인들이 갖는 시각에서 자신의 문화에서 생각하는 오락이라는 요소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3단원의 37쪽 (D1)에 제시된 텍스트는 "Bernd Dinzinger"라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는 원래 저녁시간을 TV앞에서 맥주와 과자를 먹으며 보내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건강과 운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식단과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고 운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게다가 즐겨 먹었던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꾸어 지금은 채식주의자로 살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독일인 역시 건강과 운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텍스트에 제시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운동과 병행한 건전한 식습관을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Lachen ist gesund", "Stress macht die Zähne kaputt."와 같은 건강과 관련된 격언이나 속담을 통해 학습자는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다.

4단원에서는 외국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유용한 지역사정이 될 수 있다. 45쪽(B3)에서는 학습자가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배울 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몸짓이나 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으로 제시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학습자는 독일어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더 깊게 감지할 수 있다. 47쪽(C4)에 주어진 텍스트는 효과적인 독일어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8쪽(D2)에서는 독일어를 제 2언어로서 구사하는 터키계 독일기자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외국어 주제에 관한 지역사정을 통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독일어 학습을 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5단원의 57쪽(D1)에서는 구직광고(Stellenanzeige)가 제시된다. 이 단원의 제목인 “Beruf, Job und Praktikum”에서 알 수 있듯이 57쪽에 등장한 지역사정의 주제는 직업에 관한 것이다. 학습자는 구직광고에 주어져 있는 형식을 통해 특정분야인 직업에서 쓰이는 어휘를 접할 수 있다.

6단원의 64쪽(A3)에서는 남녀가 여행을 소망하는 이유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학습자는 독일의 남성과 여성의 경우 휴식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소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독일인들이 일과 학업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주로 활동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해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7단원에서 나타난 지역사정 주제는 주거와 관련되어 있다. 74쪽(A2)에는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건물 사진이 4장 주어진다. 학습자는 각 사진에 해당하는 건물의 외형을 보고 “Das Reihenhaus”, “Das Hochhaus”, “Der Altbau”, “Der Neubau”가 지칭하는 주거의 형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주거 형태와 관련 어휘, 특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다.

<Schritte international Ⅵ>

8단원 11쪽(B3)에는 “Duzen oder siezen?”이라는 제목의 텍스트가 주어져 있다. 텍스트의 내용은 관청이나 기관과 같은 공공장소와 개인적인 장소에서 쓰이는 인칭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Duzen과 siezen에 대한 사용은 상황과 말하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

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칭의 구별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항상 발생하므로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장소와 상황, 인물에 따라서 어떤 인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옳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인칭의 사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다.

9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라는 테마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정을 전달하고 있다. 21쪽(B2)에서는 컴퓨터 중독에 빠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한 여성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물건을 경매로 파는 딸을 걱정하는 부모의 편지가 등장한다. 이 텍스트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터넷 게임, 경매, 쇼핑 등의 중독성과 같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습자는 컴퓨터 중독 현상을 통해 일어나는 부정적 문제들을 통해 독일 사회의 이면을 살펴볼 수 있다.

10단원 33쪽(C4)에서 학습자는 4가지 대화상황을 볼 수 있다. 대화는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 해당된다. 서점 주인이 추천한 책에 잘못된 글자가 많은 상황, 불량 자전거를 빌린 상황, 중국어 코스가 맘에 들지 않는 상황, 예약한 호텔에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손님과 직원간의 대화가 주어져 있다. 학습자는 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불만을 제기라는 특정상황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익힐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맥락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1단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41쪽(B3)에서는 주차를 잘못하여 벌금을 내게 되는 상황, 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상황, 그리고 과속으로 경찰로부터 처벌로 벌금을 내는 상황을 보여준다. 독일인의 일상생활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예의 바르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이러

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익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는 42쪽에 나타난 “Der Gentleman ist wieder <<in>>”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독일인 여성들이 생각하는 예의바른 남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여성들은 백화점이나 사무실에서 문을 먼저 열어주거나 잡아주거나, 어디에서나 걸음속도를 맞추어 주는 남성을 예의바르다고 여긴다. 반면에 여성들은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는 행동은 이해하나, 핸드폰의 전화벨 소리가 큰 것은 매우 무례하게 여긴다. 44쪽의 문학 텍스트에서는 독일에 사는 아라비아 인이 독일인에게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인은 누군가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을 경우 음식을 준비하여 가져간다는 점이 주인공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또한 아라비아인은 독일인의 면요리 재료의 조합이 정말 맛없다고 말한다. 그 밖에 독일인의 정확한 시간관념과 적은 식사량 등 독일인의 문화에 대하여 느낀 낯선 점들을 묘사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독일의 예절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는 아라비아인과 같이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따라서 독일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에게 예절과 관습에 관한 지역사정 내용은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타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는 아라비아 인의 모습을 통해 상호문화적 시각을 갖출 수 있다.

12단원 52쪽(C2)에서는 “Zeigen Sie auch Größe”라는 독일의 자선단체에 대한 소개가 주어져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에 대한 주제가 되겠다. 이 자선단체는 독일의 200여 개의 조직과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업자 또는 연금 생활자 등 불우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다. 또한 이 자선단체는 독일 전역에서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각종 협회,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텍스트를 접한 학습자는 독일 사회의 한 면을 관찰할 수 있고, 독일의 자선단체 또는 봉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한지 자신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다.

13단원에서 다뤄지는 지역사정 주제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중 역사와 정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61쪽(B2)에서는 3가지 신문기사가 주어져 있다. 물 보호를 위한 스위스의 캠페인과 오스트리아 빈의 슈퍼마켓에서 이뤄진 그린피스의 반대시위, 그리고 독일 Eppstein에서 일어난 시민연합의 시위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었다. 62쪽(C1)에서는 독일의 역사적인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8개의 사진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건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63쪽(C2, C3)와 64쪽(D1)에서 연대기적인 방식으로 독일의 역사와 현재 독일정치당의 상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진과 연대기적으로 나열된 지역사정의 요소들을 통해 학습자는 독일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4단원에서는 세계 공동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71쪽(B3)에서는 EU연합의 설립과정을 연대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72쪽(C1, C3)에는 각 나라의 축제와 유명한 풍습, 관습에 대한 사진이 등장한다. 요들송, 스페인의 풀피리, 이탈리아의 토마토 축제, 핀란드의 장애물 달리기 경주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는 각 나라의 유명한 축제와 대표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적 교육에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도 갖게 된다.

지금까지 필자는「Schritte international」1권에서 6권까지 각 단원 본문에서 다뤄진 지역사정 내용과 주제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유럽공통회의기준에 따른 지역사정내용 의해 분류하여 표로 나타내 보았다.

교재	단원	제 목	지역사정 주제	쪽수(번호)
1권	1	Guten Tag, Mein Name ist...	사람에 대한 정보	S.14(E1)
	2	Familie und Freunde	언어	S.19(5)
	3	Essen und Trinken	식사	S.29(4), S.33(D3)
	4	Meine Wohnung	주거	S.40(A3),

				S.43(D4-c), S.44(E2)
	5	Mein Tag	여가와 일상대화	S.54(E1)
	6	Freizeit	여가와 일상대화	S.61(B3), S.63(D3)
	7	Lernen - ein Leben lang	언어	S.74(E1)
2권	8	Beruf und Arbeit	직업	S.14(E1)
	9	in einer fremden Stadt	여행과 교통	S.23(D1)
	10	Gesundheit	건강과 위생	S.33(D1)
	11	in der Stadt unterwegs	여행과 교통	S.43(D1)
	12	Der Kunde ist König	여행과 교통	S.53(D2)
	13	Neue Kleider	인물	S.62(C3)
	14	Feste	여가와 일상대화 (초대)	S.72(C2), S.73(D1)
3권	1	Kennenlernen	여가와 일상대화 (안부)	S.12(C3), S.14(E1)
	2	Zu Hause	여가와 일상대화 (친구간의 대화)	S.24(E1)
	3	Guten Appetit!	식사	S.30(A2), S.33(D2)
	4	Arbeitswelt	직장(업)	S.43(D2)
	5	Sport und Fitness	건강과 위생	S.53(D3), S.54(E1)
	6	Ausbildung und Karriere	교육/직업(장)	S.62(C1)
	7	Feste und Geschenke	■ 관습과 풍습 (축제)	S.73(D1/D2)
4권	8	Am Wochenende	여가와 일상대화	S,10(A2), S.13(D3), S,14(E1)
	9	Warenwelt	여가와 일상대화	S.23(D1), S.24(E2)
	10	Kommunikation	■ 의사소통	S.30(A3), S.33(D2), S.34(E2)
	11	Unterwegs	여행과 교통	S.42(C2),

				S.44(E1)
	12	Reisen	여행과 교통	S.51(B2), S.52(C3), S.53(D1)
	13	Geld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S.58(1), S.64(E1)
	14	Lebensstationen	여가와 일상대화	S.72(C3), S.74(E2)
5권	1	Glück im Altag	여가와 일상대화	S.10(A2)
	2	Unterhaltung	여가와 일상대화	S.20(1), S.26(D1)
	3	Fit bleiben	건강과 위생	S.37(D1)
	4	Sprachen	교육	S.45(B3), S.47(C4), S.48(D2)
	5	Beruf, Job und Praktikum	직장(업)	S.57(D1)
	6	Kundenwünsche	여가와 일상대화	S.64(A3) S.66(C1, C2)
	7	Rund ums Wohnen	주거	S.74(A2)
6권	8	Unter Freunden	개인적인 관계와 접촉	S.11(B3)
	9	Technik und Alltag	■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기술)	S.21(B2)
	10	Rund ums Produkt	여가와 일상대화	S.33(C4)
	11	Mit Menschen	■ 관습과 풍습 (예절)	S.41(B3), S.42(C1)
	12	Rat und Hilfe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S.52(C2)
	13	Aus Politik und Geschichte	■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정치, 역사, 사회)	S.61(B2), S.62(C1), S.63 (C2, C3), S.64(D1)
	14	Zu Hause in der Welt	■ 예술, 역사	S.71(B3), S.72(C1, C3)

<표 5.2.1-2> 「Schritte international」 본문에 나타난 지역사정에 따른 주제영역 분류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주제를 분류해 보면, 지역사정의 주제로서 역사, 정치, 일상생활, 예술의 주제를 다룬 지역사정 내용은 부족한 반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분석한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의 주제들은 대부분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표에서 '■'가 표시된 영역들은 유럽공통회의에서 선정한 주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존의 주제 영역에서 특별한 테마를 다룬 영역들이다. 여기서 다뤄진 의사소통, 핸드폰, 컴퓨터, 사회적 운동과 같은 테마는 기존에 흔히 다뤄졌던 주거, 식생활, 여가생활과 같은 지역사정 주제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더욱 다양한 지역사정을 사실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고 이는 실용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역사, 정치, 예술과 같은 주제 영역을 다룸으로써, 독일의 전통과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독일의 문화와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이러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다.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 중 우리는 현 시대에 이슈로 떠오르는 컴퓨터 또는 휴대폰에 대한 지역사정을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사정을 통해 학습자는 독일 사회의 부정적인 이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주제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자는 공감할 수 있는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적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낯선 타문화적 요소를 접하게 되는 현실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

2) Zwischenspiel에 나타난 지역사정 주제영역

앞서 본문에 나타난 지역사정의 주제들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 「Zwischenspiel」을 대상으로 이에 나타난 지역사정

의 주제를 간단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도 역시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 내용을 바탕으로「Zwischenspiel」에서 다뤄진 지역사정 주제를 찾아 표로 정리해 보았다.

교재	단원	제 목	지역사정 주제
1권	1	Grüezi! Guten Tag! Grüß Gott!	사람에 대한 정보
	2	Wer? Wo? Was?	환경
	3	Brotzeit, Versper, Jause- Wir machen (k)eine Pause	식사
	4	Die Adresse ist...	주거
	5	Ein Tag in Berlin	여행과 교통
	6	Frei? Zeit? Stress!	여가와 일상 대화
	7	Ui! Ich hab′ schon wieder was gelernt!	사람에 대한 정보
2권	8	Schöner Bilder - falsche Schilder	직장(직업)
	9	Da tanzt die ganze Stadt!	■ 풍습(축제)
	10	Das hat Hand und Fuß	언어(신체적 언어가 가진 다른 의미)
	11	Entschluldigen Sie...?	여가와 일상대화 (길묻기)
	12	Zu Besuch beim Märchenkönig	여행(숙박시설에 대한 광고)
	13	Mode?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의상)
	14	Lieber, guter Nikolaus... -eine vorweihnachtliche Liebes -geschichte	■ 풍습 (성 니콜라우스 축일)
3권	1	Ich kenn′ dich	환경(도시소개)
	2	Das bunte Haus von Wien	여행(빈의 명소, 주거, 건축가)
	3	Gefährlich süß!	식사 (각 지방의 빵 소개)
	4	Das Ding	■ 상품

			(여러 종류의 칼 소개)
	5	Frei klettern	운동+사람에 대한 정보: 1)스포츠 + 지역 (암벽등반을 위한 작센 주의 명소) 2) 인물소개 (Fritz Wiessner 유명한 독일의 산악인)
	6	Die tanzende König	■ 예술(무용가)
	7	Ein Fest und seine Gäste	여가와 일상대화
4권	8	Sonntags...	여가와 일상대화
	9	Rund um die Welt	■ 상품(악기)
	10	Weg mit dem "un-!"	언어
	11	Punkte in Flensburg?	여행과 교통
	12	Eine runde Sache	사람에 대한 정보
	13	Sie wollen alle nur das eine!	언어
	14	Sag beim Abschied leise "Servus"	■ 독일의 노래
5권	1	Spiele Leben	■ 독일의 영화
	2	Nicht einfach, aber einfach gut	사람에 대한 정보
	3	Operation Schönheit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실
	4	Klingel! Klingel! Endlich Pause!	■ 예술
	5	Lust, mitzusingen?	여가와 일상생활
	6	Schnell, schnell...	언어
	7	Mach, Opa, mach!	환경
6권	8	Gib's da was zu lachen?	사람에 대한 정보
	9	Jetzt geht's ganz nach oben...	개인적인 관계와 접촉
	10	Die sprechende Zahnbrüste - eine Kolume	사람에 대한 정보
	11	Über den Umgang mit Menschen	사람에 대한 정보
	12	Reden wir drüber...	여가와 일상대화
	13	Warum hat Lise Meitner keinen Nobelpreis bekommen?	사람에 대한 정보

	14	Kommt jetzt das Ende des Abendlandes?	(교재 구성원 인사)

<표 5.2.1-3> 「Zwischenspiel」에 나타난 지역사정 주제영역

「Zwischenspiel」에서 다룬 지역사정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사람에 대한 정보, 여가와 일상대화, 그리고 언어 순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로 표시한 부분들은 유럽공통회의에서 정한 지역사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예술, 풍습에 대한 주제들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노래와 영화, 그리고 독일에서 유명한 상품이면서 친숙한 악기로 알려진 하모니카(Mundharmonika)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풍습의 주제에서 제시된 지역사정은 성 니콜라스 축일과 독일의 카니발에 대한 내용이다. 니콜라스 성 축일은 동양권 문화권의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축일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두고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와 거기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날에 이루어지는 풍습을 통해서 학습자는 타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들의 역사적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2장의 9단원 「Zwischenspiel」에서는 카니발에 대한 지역사정을 전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년을 4계절이 아닌 5계절로 생각할 만큼 카니발은 독일인에게 1년 중 큰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학습자는 카니발의 시기와 다채로운 축제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유럽 문화의 한 면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와 주어진 사진 자료를 통해 생생한 카니발의 이미지를 떠 올릴 수 있다.

「Zwischenspiel」에서 보여진 지역사정 주제들은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별도로 삽입된 문화와 예술, 풍습 영역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어권 국가의 역사적, 정치 등과 관련된 지역사정이 부족하다. 이는「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교재 구성에 있어 의사소통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집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 사회, 경제와 같은 주제 보다는 실제 의사소통에 필요한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Zwischenspiel」의 주제영역에서 보이는 특징은 통합적 이라는 점이다. 지역사정의 주제는 독일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스위스와 오스트

리아의 지역사정까지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동양권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은 찾기 힘들다. 독일어권 영역인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지역사정은 체코 또는 터키와 같은 나라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다. 이들 또한 국가명에 대한 언급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시대에 지역사정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습자가 타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자의 국가를 고려하여, 타문화에 대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주제영역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치우친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며, 이 역시 유럽국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지역사정 연구에 있어 교재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다양한 국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는 한국, 일본, 태국 등과 같이 동양국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삽입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친구와 같은 연령의 동양학생의 소개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동양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독일어권 국가와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학습자의 학업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서양의 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종교라는 주제를 사용하여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를 비교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을 위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각 나라의 학습자는 각각의 종교관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주제로서 식문화, 주거생활, 유행에 민감한 패션과 휴대기기 등 비교될 수 있는 지역사정의 주제 영역은 다양하다.「Schritte international」은 세계 여러 나라의 독일어 학습자를 고려하여 독일어를 배우는 각국의 학습자 모두가 타문화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역사정의 주제 영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룰 필요성이 있다.

5.2.2 전달방식 분석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역사정에 대한 주제영역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내용들은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지역사정이 어떠한 전달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교재「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4장에서 Ammer와 Grawe가 제시한 지역사정 전달방식 이론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두 사람이 제시하는 각각의 전달방식에 해당하는 예를「Schritte international」에서 찾아본다. 먼저 Ammer의 교재의 측면에서 바라본 지역사정 전달방식에 따라「Schritte international」를 분석한다.

구분	Ammer	
분류기준	교 재	
전달방식	1	사실 그대로를 모방하여 제시하는 방식
	2	독일 사회의 표준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는 방식
	3	독일을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방식
	4	특정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방식
	5	비판적이고 자립심 함양을 위한 전달 방식

<표 5.2.2-1> 교재의 측면에서 바라본 Ammer의 지역사정 전달방식

첫째, Ammer의 지역사정을 여러 주제로 구분하여 사실 그대로 모방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전달방식은「Schritte international」시리즈 전권에서 적용되고 있다. 사람에 관한 정보, 음식, 주거, 여가시간 등 각 단원의 특정한 주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정 내용들을 실제와 동일한 사진, 도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권의 1단원 14쪽(E1), 4단원 43쪽(D4), 6권 42쪽(C1)에서 지역사정은 단원의 주제와 관련한 사실적 정보들을 전달한다.

둘째, 독일사회의 표준으로 간주되는 지역사정을 문서로 제시하는 방

식이다.「Schritte international」6권의 42쪽 (C1)에서는 이와 같은 전달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설문지가 주어져 있으며, 독일 여성이 생각하는 예의바른 독일 남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달방식은 1권 61쪽(B3), 64쪽(E2), 2권 14쪽(E1), 43쪽(D1), 72(C2), 3권 32쪽(A2), 4권 23쪽(D1), 33쪽(D2), 42쪽(C2), 52쪽(E2), 62쪽(C1), 72쪽(C3), 5권 26쪽(D2), 34쪽(A1), 64쪽(A3), 6권 11쪽(B3), 62쪽(C1)에서 나타난다.

셋째, 독일을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전달방식이다.「Schritte international」4권의 53쪽 D1)에는 독일의 휴양명소를 엽서 내용을 통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지역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교재에서는 이러한 지역사정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학습자가 독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다. 이 전달방식은 2권 53쪽(D2), 4권 64쪽(E1), 5권 15쪽(D1)에서 나타난다.

넷째, 특정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전달방식이다.「Schritte international」4권의 52쪽 (C3)에는 여행 사무실에서 상품을 예약하는 상황이 주어져 있다. 학습자는 여행 광고를 통해 특정 조건과 지역사정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 학습자는 특정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역사정을 정보로서 습득하며, 이를 이용하여 원활한 대화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달방식은 1권 14쪽(E2), 34쪽(E4), 3권 74쪽(E3), 4권 32쪽(C4), 54쪽(E3), 5권 55쪽(B3), 57쪽(D2), 68쪽(D3), 76쪽(C2)), 6권 22쪽(C2), 33쪽(C4)에서 나타난다.

다섯째, 비판적이고 자립심 함양을 위한 지역사정 전달방식이다. 4권의 44쪽 (E3)에서는 교통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간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 활동이 주어져 있다. 학습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긴장하게 되는 원인 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는지 등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눈다. 이렇게 주어진 과제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느끼는 문화적 차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전달방식은 학습자에게 타문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중립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타문화에서 통용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전달방식은 52쪽(C3), 5권 38쪽(E5), 47쪽(C6), 6권 43쪽(C4), 44쪽(D3), 51쪽(B3), 54쪽(E3), 61쪽(B3), 70쪽(A3)에서 나타난다.

Ammer의 전달방식에 이어, Grawe의 교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Schritte international」에서 찾아 분석해 본다.

구분	Grawe	
분류기준	교 사	
전달방식	1	지역사정을 언어수업의 한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2	지역사정의 내용을 언어수업에 관계없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
	3	문학작품을 통해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

<표 5.2.2-2> 교사의 측면에서 바라본 Grawe의 지역사정 전달방식

첫째, 지역사정을 언어수업의 한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는「Schritte international」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Schritte international」는 어학교재이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전달할 때, 언어학습과 연계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는 제시된 내용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 문장의 구조, 언어 표현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어학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Schritte international」 5권의 57쪽에는 구직광고(D1)와 전화상의 대화(D2)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모두 지역사정의 내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광고 내용을 이해하도록 읽기(Lesen)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더불어 교사는 말하기(Sprechen) 학습을 통하여 전화 상황 하에서 구직자, 음식점 직원 또는 학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상황과 문맥에 맞는 말하기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교사는 엽서, 편지, 광고와 같은 텍스트에 담긴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학습 중 읽기 영역에 대

한 학습을 하거나 텍스트인 엽서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쓰기(Schreiben) 학습을 연계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교사는 언어학습이 진행되는 중간에 단원의 주제 또는 어휘 학습과 관련된 지역사정에 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정을 언어수업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Schritte international」은 어학교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적으로 지역 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 교재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언어수업에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예로서, 6권의 61쪽에 주어진 (B2)에서는 신문보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일어난 정치적 공통참여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문제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갖는 환경, 역사, 사회 분야의 지역사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정 내용을 가지고 교사는 학습자의 발표 또는 교사의 강연, 세미나, 토론으로 구성하여 독립된 지역사정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달방식은 3권의 33쪽 D3), 4권의 33쪽 D2), 6권의 64쪽 D1)에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문학작품을 통해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이다.「Schritte international」에 문학작품은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전달방식을 6권 44쪽의 (D2)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주어진 문학 텍스트 내용은 아라비아 인이 독일인에 대해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텍스트 속에 나타나는 독일인의 일상생활의 지역사정 정보를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상호문화적 학습으로 연계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이용한 수업은 학습자에게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을 명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준다. 게다가 문학 작품 속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실제로 목표언어국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까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지역사정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46] 교사는 문학 텍스

46) Löschmann, M., Literarische Texte und Landeskunde im Fremdsprachenunterricht, In: Ehnert, R./Schröder. H.(Hrsg.), *Da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in den Deutschsprachigen*

트를 통하여 학습자에게 타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텍스트를 사용하여 읽기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5권 28쪽(E1, E2)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Ammer와 Grawe의 이론에서 교재와 교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살펴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Ammer와 Grawe의 이론은 교사와 교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 수업의 참여요소로서 교재, 교사, 학습자를 세 가지 핵심요소로 떠올릴 수 있다. 필자는 이 세 가지 입장이 반영될 때,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에 대한 전달방식을 제안하는 데 있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학습자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전달방식에 대한「Schritte internatio -nal」의 분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지역사정의 주제와 전달방식이 실제적으로 교재에서 나타날 경우, 학습자는 교재와 교사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교재에서 전달하는 내용이나 교사가 어떻게 지역사정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교과서 및 어학교재에서 독일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만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교사가 독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지역사정이 학습이 이루어 질 때, 교재에 억매이거나 교사의 주도적 또는 일방적인 교수법은 학습자가 수업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자에게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편견을 심어주거나,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정착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학습자는 목표언어의 학업에 대한 욕구와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독일어 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이

Ländern, Frankfurt am Main: Lang, 1990, 337.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한국의 독일어 교육은 문법에 치중하거나 해석 위주의 외국어 교수법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2외국어과 독일어과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자발적인 학습 상황을 전개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필요와 능력에 알맞은 개별 학습 및 소집단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47]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사정의 영역에 대한 특정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의사소통적 교수법과 함께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사정의 영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학습목표에 따라 교사와 교재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48]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습자의 참여와 학습자를 고려한 외국어 수업을 권장하는 교육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오직 Ammer와 Grawe의 전달방식 이론을 지역사정 활용방안에 반영할 경우, 지역사정 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학습의 핵심 요소이며 주체적이어야 하는 학습자의 측면을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교재와 교사의 측면과 더불어 '학습자 중심'이라는 요소를 반영하고자「Schritte international」의 지역사정 전달방식을 학습자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Ammer와 Grawe가 '교재와 교사가 지역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필자는 '학습자가 어떻게 지역사정을 전달받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어 전달방식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Schritte international」의 교재집필 의도는 실제 교재에서 지역사정 학습을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전달방식에 앞서 먼저「Schritte international」의 집필의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47) http://cutis.mest.go.kr/NTC/view.-jsp?gCd=S02&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14&pnum=1&cnum=0&src=&srcTemp=&pageSize=10&cPage=3&no= 56,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별책 16】, 2012월 12월 18일 접속.

48) 김미승, 독일어 교육에서 문화 및 지역사정 교육의 의미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이문화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관점에서 -, 독어교육 26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003, 67.

「Schritte international」의 교재집필 의도는 의사소통능력 함양과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49] 물론「Schritte international」의 전달방식은 Ammer와 Grawe가 제시한 전달방식과 부분적으로 상응하고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Schritte international」에서 지역사정은 학습자의 상호적 활동과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파트너와의 특정 상황과 주제에 대한 언어적 표현 연습, 그룹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통한 문화 비교, 독일 노래 배우기, 퀴즈와 같은 놀이형식을 통해 지역사정의 내용을 학습한다. 동시에 학습자는 주제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학습의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혹은 상호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이처럼「Schritte international」은 학습자가 학습과정 속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자율적인 평가를 통하여 생산적, 능동적 학습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을 고려하여「Schritte internati-onal」에 나타난 지역사정의 전달방식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다양한 텍스트를 접함으로써 지역사정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그림 5.2.2-1>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50]

---

49) http://www.hueber.de/seite/pg_info_konzept_sit?menu=89874, 2012월 11월 08일 접속. 이곳에서 교재 Schritte international의 집필의도가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과 자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0) Niebisch, D./ Hilbert, S. u.a., *Schritte international VI*, 2006,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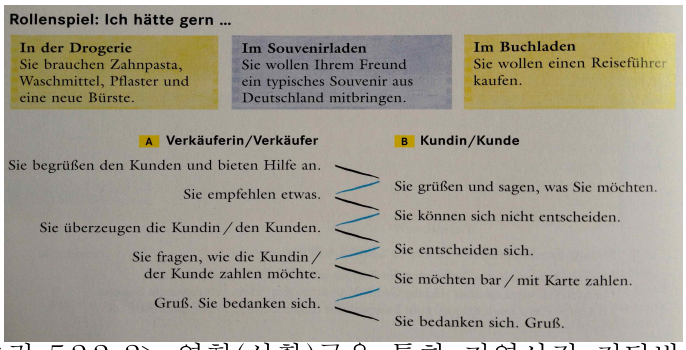
「Schritte international」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텍스트를 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독일어권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실제형식과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다양한 텍스트를 접함으로써,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형식과 문체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스스로 각 텍스트에 쓰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지역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쓰기, 읽기의 언어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사정 내용을 실제적 의사소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텍스트에서 드러난 언어적, 문화적 특징은 학습자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자기 소개글, 인터뷰, 강좌 안내문, 광고문, 기사와 같은 종류의 텍스트는 독일의 일상생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 학습자가 일상생활에 대한 배경지식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같은 텍스트는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지역사정을 전달하는데, 학습자는 사진 자료를 통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묘사와 언어적 표현을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다. 이 연상 작용으로 인해 학습자는 목표언어국가의 행동양식에 숨겨진 개념과 상황에 접근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사고의 범위를 좁히고 지역사정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가깝게 경험할 수 있다.[51]

그림 5.2.2-1>은 제시된 여행지에서 머물 수 있는 숙박업소 광고를 보여준다. 학습자는 실제와 같은 광고를 통하여 특징적인 글의 형식과 문체, 그리고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 등 지역사정의 내용을 보다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 밖에도「Schritte international」에서는 편지글, 자기소개의 글, 광고문, 강좌 안내문, 소설, 문자, 쪽지, 상담글, 인터뷰, 퀴즈, 설문지 등 주제에 맞는 다양한 텍스트가 사용되고 있다.

둘째, 역할(상황)극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이다.

---

51) Macaire, D./Hosch, W., *Bilder in der Landeskunde*, Fernstudieneinheit 11, München u.a., 1996, 15.



<그림 5.2.2-2> 역할(상황)극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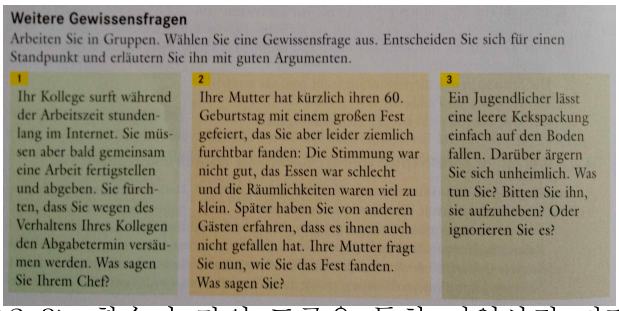
학습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파트너와의 대화를 연습해 봄으로써,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 학습자는 역할(상황)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을 통해 주어진 특정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찾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감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과 역할은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목표국가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지역사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특정상황에서 가상의 역할을 맡아 참여하게 됨으로써, 학습자가 갖고 있는 선행 지식을 실생활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53]

위의 그림 5.2.2-2>의 예와 같이 학습자는 파트너와 상점에서 이뤄지는 손님과 직원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러한 전달방식을 통해 습득된 지역사정 정보는 의사소통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역할(상황)극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은 교사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수업시간이나 과제로 대본을 연습해 보고 그에 따른 비언어적 표현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지역사정 수업이 될 수 있다.

---

52) Niebisch, D./ Hilbert, S. u.a., *Schritte international VI*, 2006, 68.
53) 이난희, 배은하,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방법 및 학습 자료 연구 - 독일어 수업을 중심으로 -, 교과교육학 연구 제 3권 1호, 1999, 234.

셋째, 학습자 간의 토론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이다.



Weitere Gewissensfragen

Arbeiten Sie in Gruppen. Wählen Sie eine Gewissensfrage aus. Entscheiden Sie sich für einen Standpunkt und erläutern Sie ihn mit guten Argumenten.

1
Ihr Kollege surft während der Arbeitszeit stundenlang im Internet. Sie müssen aber bald gemeinsam eine Arbeit fertigstellen und abgeben. Sie fürchten, dass Sie wegen des Verhaltens Ihres Kollegen den Abgabetermin versäumen werden. Was sagen Sie Ihrem Chef?

2
Ihre Mutter hat kürzlich ihren 60. Geburtstag mit einem großen Fest gefeiert, das Sie aber leider ziemlich furchtbar fanden: Die Stimmung war nicht gut, das Essen war schlecht und die Räumlichkeiten waren viel zu klein. Später haben Sie von anderen Gästen erfahren, dass es ihnen auch nicht gefallen hat. Ihre Mutter fragt Sie nun, wie Sie das Fest fanden. Was sagen Sie?

3
Ein Jugendlicher lässt eine leere Kekspackung einfach auf den Boden fallen. Darüber ärgern Sie sich unheimlich. Was tun Sie? Bitten Sie ihn, sie aufzuheben? Oder ignorieren Sie es?

<그림 5.2.2-3> 학습자 간의 토론을 통한 지역사정 전달방식[54]

지역사정은 학습자 간의 토론을 통하여 전달된다.「Schritte international」에서는 학습자의 그룹 활동을 요구하는 과제가 자주 등장한다. 학습자는 그룹 안에서 토론을 통하여 동일한 주제 아래 타 학습자가 가진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그룹은 동시에 공동의 의미부여 과정(Sinngebungsprozess)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자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 기반한 공통되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55] 또한 학습자는 타인과의 토론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출신국가, 문화적 배경,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정의 요소를 전달받는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또는 그룹을 이루어 지역사정 자료를 찾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 자신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학습자는 타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문화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 나갈 수 있다.

3) Zwischenspiel에 나타난 전달방식 분석

본 장에서는「Schritte international」의 「Zwischenspiel」에 나타난 지역사정을 앞서 제시한 Ammer와 Grawe의 교재와 교사의 측면에 따른 전달방식과 필자가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전달방식에 따라 간략히 분석해

54) Niebisch, D./ Hilbert, S. u.a., *Schritte international VI*, 2006, 54.
55) Biechele, M./Padrós, A., *Didaktik der Landeskunde*, Fernstudieneinheit 31, München u.a., 1999, 115.

본다.

Ammer가 제시한 지역사정을 사실 그대로 모방하는 전달방식은 「Zwischenspiel」의 구성상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Zwischenspiel」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mmer의 전달방식은 독일사회 표준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는 전달방식과 독일사회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전달방식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일사회 표준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문서로 제시하는 전달방식은 1권 36쪽, 46쪽, 76쪽, 2권의 36쪽, 4권의 36쪽, 76쪽, 5권의 80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재에서는 독일 사회에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다양한 텍스트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 다뤄지는 지역사정의 내용은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차이, 비언어적 표현, 상황에 쓰일 수 있는 적절한 표현 등에 관한 것이다. 한편, 독일을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전달방식은 2권의 26쪽, 76쪽, 4권의 26쪽, 56쪽, 5권의 30쪽, 50쪽, 6권의 16쪽, 46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하모니카(Mundharmonika)에 대한 소개, 독일의 유명한 칼(Messer)의 소개, 여행 명소, 카니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전달방식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전달방식이다. 이 전달방식은 1권 56쪽, 2권 56쪽, 3권의 76쪽, 4권의 66쪽, 5권의 70쪽, 6권의 56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전달방식은 대화상황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상생활 관련 주제영역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길을 찾는 상황, 파티대화, 주말의 여가시간 등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지역사정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자립심 함양을 위한 전달방식은 2권의 66쪽, 5권의 40쪽, 60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패션, 미(美)와 같이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주제와 연결 된다. 교재에서는 학습자가 이러한 지역사정의 주제들 아래,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비교 과정을 통해 지역사정 학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의견을 말해보거나 토론을 필요로 하는 과제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

「Zwischenspiel」에서는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주거, 음식, 예절, 여행, 여가시간 등과 같이 특정한 주제에 따라 분류되는 지역사정을 Grawe가 제시한 언어수업의 한 요소로서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Zwischenspiel」에 나타난 편지와 엽서를 통해 소개하는 법, 인사법을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고, 요리 레시피, 박물관에 관한 지역사정 정보를 통해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읽고 말하기(Sprechen) 학습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교사는「Zwischenspiel」4권의 80쪽과 같이 역사적인 내용을 다룬 지역사정을 언어수업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강의, 세미나 형태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Zwischenspiel」에서는 문학작품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는 4권 75쪽에 주어진 노래 가사, 6권의 36쪽에 주어진 칼럼과 같은 텍스트의 문장을 통해서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접하고 이를 지역사정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측면에서 볼 때,「Zwischenspiel」에 나타난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Zwischenspiel」에서는 다양한 지역사정을 보여주는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다. 학습자는 광고, 퀴즈, 레시피, 여행 안내문, 일기, 메모, 편지 등의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접함으로써 지역사정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권의 36쪽, 46쪽, 56쪽, 2권의 16쪽, 26쪽, 3권의 46쪽, 56쪽, 4권의 46쪽, 56쪽, 5권의 18쪽, 30쪽, 80쪽, 6권의 16쪽, 26쪽, 36쪽, 46쪽, 66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역할(상황)극을 통한 전달방식은 1권의 76쪽, 2권의 36쪽, 4권의 36쪽, 5권의 60쪽, 70쪽, 6권의 56쪽에서 나타나면, 학습자간의 토론을 통한 전달방식은 2권의 66쪽, 3권의 36쪽, 5권의 40쪽, 50쪽, 6권의 56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Schritte international」에 나타난 지역사정의 전달방식을 Ammer와 Grawe, 필자가 제시한 교재, 교사, 학습자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필자는 분석된 지역사정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고려할 점을 밝힌다.

이 장에서 다루어진 전달방식의 분석은 어학 교재인「Schritte international」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Grawe가 제시한 지역사정의 전달방식은 주로 '지역사정을 수업의 한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한계를 보여준다. 어학 교재는 학습자의 어학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이 어학수업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Zwischenspiel」의 경우, 교사가 이를 어학수업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지역사정 수업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교사는「Zwischenspiel」중 한 가지 지역사정 주제영역를 정하여 좀 더 심화된 지역사정이 반영된 수업형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3. 독일어 교재에서의 지역사정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에 대한 제안

지금까지 교재, 교사와 학습자의 측면을 고려한 '독일어 교재에서의 지역사정 전달방식'을 「Schritte international」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실제 독일어 교재를 위한 지역사정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사정 학습은 실제로 독일어 교재에서 언어 학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학학습과 관련성, 교사의 교수법, 학습자의 관심, 기호도, 선행 지식과 같은 요소들이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에 반영되어야 한다. 필자는 독일어 교재의 구성을 고려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을 위하여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독일어 교재에 나타나는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첫째,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독일어 어학학습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정 학습의 목표는 독일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따라서 어학학습이 이루어질 때,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교재의 각 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학학습과 교수법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학학습이 의사소통적 능력에 초점을 두어 말하기(Sprechen)에 대한 어학학습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상황을 보여주는 주거, 음식, 여가생활, 가족, 건강 등과 같은 지역사정 주제영역이 적합할 것이다. 반면에 읽기(Lesen)과 같은 어학학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긴 문장의 구조와 새로운 어휘를 배울 수 있는 텍스트를 통하여 독일의 역사, 예술, 사회와 같은 분야에 대한 주제영역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실용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사정은 교재와 교사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사전지식이 될 수 있는 요소와 학습자의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이와의 접촉 경험이다.[56]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의 내용이 지역사정 주제영역에 체계적으로 반영된다면, 주제영역은 더욱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교재에서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공통회의에서 제시한 지역사정은 독일어권 국가들의 교육, 언어, 환경, 일반적인 관심을 갖는 현실과 같이 객관적이고 사회의 예절이나 규범과 같은 사실을 다루는 주제 영역과 식사, 물건구입, 운동, 직장, 주거와 같이 일상생활의 영역을 다루는 주제영역을 보여준다. 이는 독일어권 국가의 문화와 문화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관심영역이어야 한다. 지역사정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는 학습자의 학업 동기와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관심영역이나 학습자가 공감할 수

56) 김순임/하수권, 독일어 관련 전공교육과정에서의 지역·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도입 사례 연구, 텍스트언어학 17, 2004, 38.

있는 주제 영역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독일에서 만들어진 교재는 독일어권 생활에 대한 지역사정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문화의 상호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하여 한국의 교육상황에 맞는 주제영역이 부족하다.[57] 본 논문에서 분석한 어학교재 「Schritte international」의 경우만 보아도 유럽국가 중심의 다양한 독자를 상정하기 때문에 한국의 독일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영역은 한정적이다. 따라서 지역사정 주제영역은 한국의 독일어 학습자 또는 또래집단 학습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의 독일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적 내용이 한국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학습자를 위한 독일어 교재의 지역사정 주제영역을 선별할 때, 지역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독일어 학습자와 또래집단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을 선별하여 주제영역으로서 제시해 본다. 문화적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의 범위는 크게 일상생활문화와 사회문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일상생활문화

-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과목, 수업 시간, 선생님, 교우 관계, 동아리 활동 등
- 취미와 여가활동에 관한 내용: 운동, 춤, 음악, 독서, 컴퓨터 게임 등
- 통신 수단에 관한 내용: 전화, 편지, 인터넷, 전자우편 등

2) 사회문화

- 생활문화에 관한 내용: 여가생활, 학교생활, 교우 관계, 쇼핑 등
- 제도 문화에 관한 내용: 교육, 복지, 의료, 언론, 환경보호, 정보통신 등
- 역사 및 지리 문화에 관한 내용: 자연환경, 가치관, 유럽 연합, 독일의 분단 및 통일 등
- 예술 문화에 관한 내용: 음악, 미술, 영화 등
- 언어문화에 관한 내용: 제스처, 전문용어, 상징과 비유 등[58]

---

57) 최윤영, 독어독문학 수업과 지역학 - 지역학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2집, 1997, 264

이처럼 학습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 상황을 잘 반영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패션, 팝음악, 휴대폰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영역은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으로 다뤄질 때, 학습자의 흥미는 물론 어학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독일어 교재의 지역사정 주제영역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이미 나타난 사회적 문제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모범 사례, 통일문제, 취업문제, 청소년의 음주, 마약, 흡연, 환경문제와 같은 시사성 있는 주제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 전달방식과 관련하여

필자는 전달방식과 관련하여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교재, 교사, 학습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안한다.

첫째, 교재는 지역사정을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달해야 한다. 독일어 교재에서 다루는 어학수준과 학습자의 수준이 적절히 상응할 때, 학습자는 효과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배울 때, 지역사정 역시 학습자의 어학수준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주제영역과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역사정을 전달해야 한다. Ammer가 제시한 지역사정의 전달방식을 살펴보면, 사실 그대로 모방하여 제시하는 방식 또는 독일을 긍정적으로 선전하는 방식은 비교적 쉬운 문장 구조와 어휘를 사용하며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급단계의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이다. 반면 특정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방식이나 비판적이고 자립심 함양을 위한 전달방식은 학습

58) http://cutis.mest.go.kr/NTC/view.-jsp?gCd=S02&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14&pnum=1&cnum=0&src=&srcTemp=&pageSize=10&cPage=3&no=56,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별책 16】, 2012월 12월 18일 접속, 필자는 제시된 지역사정의 내용 중에서 한국의 독일어 학습자/또래 집단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함.

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중, 고급 단계의 학습자이 이해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의 수준 반영하여 지역사정을 단계별로 전달하는 교재를 집필한다면, 교사와 학습자는 수준에 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독일어권 국가의 일상생활, 긍정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 이면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지역사정을 치우침 없이 골고루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쉬운 단어와 짧은 텍스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자의 흥미와 학업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지역사정 내용부터 긴 문장의 텍스트와 고급단어, 시사성이 있는 지역사정의 내용까지 다양한 지역사정을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교재에 나타난 지역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전달해야 한다. Grawe가 제시한 각각의 전달방식에 더하여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사의 지역사정 학습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학습의 한 요소로서 간접적으로 지역사정을 전달할 경우, 교재의 내용을 언어학습과 연결하여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언어학습과 조화되도록 지역사정 내용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할 것인지, 기존의 지역사정에 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문학 텍스트를 통해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경우, 어떠한 작품을 선별해야 할 것인지, 작품을 선택한 선별기준은 무엇인지, 더하여 이를 어떻게 사용하여 지역사정 학습에 활용할 것인가 등 교사는 다양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교수법, 수업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고려하여 지역사정을 전달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정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를 유도하며 전달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더 이상 학습대상이 아니라, 수업을 함께 이끌어 가는 공동 참여자이며 학습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59] 따라서 교재에서는 학습자가 직, 간접적인 경험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룹간의 토론, 놀이를 통한 학습 등

59) 김한란, 독일어 교육과 지역학, 응용지리 제 21집, 1998, 48.

과 같이 체험이 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더하여 토론을 통한 전달방식에 효과적인 지역사정 주제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그룹을 구성할 경우 그룹의 규모는 몇 명의 인원이 적당한지,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지 등과 같이 유형별로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달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학습계획 아래, 학습자는 목표언어국가에 대한 지역사정에 대한 내용과 상황을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집중력은 학습 태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독일어 교재에서의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의 제안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제시된 전달방식은「Schritte international」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교재, 교사, 학습자를 고려한 요소는 포함되어 있으나, 다양한 실제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필자가 제안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은 한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유동성 있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내용, 학습의 분위기, 교사의 의도 등에 따라 전달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교육여건상 지역사정에 대한 교사의 재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소수의 적극적인 성향의 학습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가 지역사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학습자의 토론이나 놀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의 교육 사정을 반영한 실제 외국어 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재의 선택, 교사의 지역사정에 대한 재교육,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수법과 병행하는 방안, 또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제안한 독일어 교재에서의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에 대한 제안은 실제 독일어 교재에서 나타날 때, 예상되는 단점을 감안하여 학습

목표와 주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본 논문은 독일어 학습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정이 독일어 교재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사정의 발전경향,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의 지역사정 그리고 지역사정의 주제와 전달방식 이론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취지는 실제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 학습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외국어로서 독일어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학교재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들을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자료와 기존의 지역사정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지역사정에 대한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지역사정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고 아직까지 지역사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정에 대한 용어의 사용과 개념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사정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뤄진 결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영역에서 지역사정은 목표언어국가와 그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과 같은 영역에서부터 일상생활과 관계된 모든 정보라 할 수 있다. 지역사정 교육은 학습자의 의사소통적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인구 증가와 세계화의 움직임에 따라 다문화 사회를 이뤄가는 시대적 환경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정 학습의 중요성은 현 시대의 외국어 교육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정의 역사를 노이너가 제시한 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필자는 외국어 교육의 역사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의 시기를 기준으로 노이너의 이론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이전의 지역사정

은 각 시대의 정신적 사상과 사회적 상황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지역사정의 주제와 내용,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체계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사정은 오늘날 외국어로서 독일어 분야에서 하나의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서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고 많은 학자들 역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정에 대한 연구는 외국어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이뤄진 지역사정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정의 종류는 사실적, 의사소통적,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으로 나누어진다. 초기 수업에서 나타난 사실적 지역사정의 방안은 의사소통적 또는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에 비해 정보적 성격이 강했다. 이는 학습의 주제와 연관성이 없거나 교재의 맨 뒷부분에 위치하는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상황에 적합한 행동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지역사정 방안이 시도는 지역사정이라는 분야에 혁신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적 지역사정 방안을 통해 지역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벗어나 언어학습을 이루는 요소로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은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목표언어국가의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주제와 내용들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목표언어국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뒤이어 나타난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은 우리가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현 시대에 타문화에 대한 개념과 주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더하여 학습자가 개방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외국어로서 독일어 분야에서 나타난 지역사정의 3가지 방안은 각각 외국어의 교수법에 따라 각기 다른 시기에 별도로 발전되었으나, 현재는 통합적 형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실적, 의사소통적, 상호문화적 지역사정 방안은 실제 수업에서 주제 영역과 학습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분야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에 대한 연구는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의 방안이 시작되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주제영역과 내용들이 목표언어국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목표언어국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방식을 알 수 있는 일상생활 영역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자료들로서「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를 시작으로 튀빙겐 모델의 결과물인「Die Deutschen in ihrer Welt」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책의 출판을 통해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내용을 다룬 자료들이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었다. 때문에 두 책의 출판은 지역사정 주제영역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Ammer는 교재의 측면에서 Grawe는 교사의 측면에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이론은 교재와 교사라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학습목표에 맞추어 상호적으로 교재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서 나타난 지역사정 요소를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의 두 가지 영역에서 분석한 결과, 사실적 의사소통적 그리고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이 모두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서는 의사소통적 지역사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제영역의 분석에서 현저히 드러났는데,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 음식, 일상대화, 여가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를 Ammer와 Grawe가 제시한 지역사정 전달방식에 따라 5가지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Ammer와 Grawe의 경우, 교재와 교사의 측면에서 지역사정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학습자를 고려한 요소는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학습자의 측면에서 「Schritte international」의 분석을 덧붙였다. 「Schritte internationa

l」의 지역사정은 학습자의 의사소통적 능력을 위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아쉽게도 현재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요구되는 상호문화적 지역사정에 대한 관련 주제영역은 극히 적었다. 설령, 제시된 주제영역 조차도 터키, 체코와 같이 유럽권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의 구성이 유럽 국가의 독일어 학습자들 위주로 고려하여 집필 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같은 동양국가의 학습자가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문화적 거리감을 좁히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호문화적 학습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에서는 다양한 동양국가의 문화를 다룬 텍스트, 사진 등의 삽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 중심이라는 교재집필 의도는 다양한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으나, 수동적인 한국의 수업 분위기와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독일어 수업에서 이 교재를 사용할 경우, 학습목표와 분위기, 학습자의 태도, 학습매체의 사용을 고려하여 수업 실정에 맞는 지역사정 학습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정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어학교재인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를 사용하여 Ammer와 Grawer의 이론에 따라 전달방식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교재, 교사, 학습자를 외국어 학습의 핵심요소로 생각하였고, 분석 자료를 독일어 교재에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을 제안하는 데 바탕으로 삼았다. 필자는 Ammer와 Grawe의 이론에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학습자 입장에서 '지역사정이 전달되는 방식'을 「Schritte international」을 통해 분석하였다.

필자가 제안한 지역사정의 주제영역과 전달방식은 교재, 교사, 학습자의 측면을 고려하였기에 독일어 교재를 통한 지역사정 학습에 있어 긍정적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교재의 집필자, 교사들이 지역사정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한국에서 이뤄지는 독일어 수업에 적용했을 때, 부족한 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 실제의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지 못한 연구, 한국의 수동적인 수업 분위기와 학습 도구의 활용, 또는 교사의 지역사정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학습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꼽을 수 있다. 또한「Schritte international」의 구성이 유럽국가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한국의 현 상황과 결부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독일어 교재에서의 지역사정 학습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김미승(2003). 독일어 교육에서 문화 및 지역사정 교육의 의미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이문화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관점에서 -, 독어교육 제 26집, 53-81.

김미승(2005). 독일어 수업에서의 이문화간 학습 Stuttgarter - 구상안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 32집, 29-57.

김순임, 하수권(2003). 지역사정 및 문화 교육 중심의 독일어 전공 교육 발전 가능성 고찰, 외대논총 제 27집, 85-100.

김순임, 하수권(2004). 독일어 관련 전공교육과정에서의 지역 ·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도입 사례 연구, 텍스트 언어학 제 17집, 27-58.

김한란(1998). 독일어 교육과 지역사정, 응용지리 제 21집, 39-55.

김한란(1998).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수업에서의 지역사정, 독일어 문화권 연구 제 1집, 177-192.

박동환(1997).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재에 나타난 지역사정 연구 - 「Moment mal!」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형욱(1997). 독일어과 제7차 교육과정개발 현황과 그 문제점,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외국어교육학회, 62-69.

안명수, 하수권(2000). 지역 및 문화 교육 중심의 외국어 교수법 관점에서 살펴 본 고등학교 독일어 교재의 개선방안, 교육논총 제 2집, 313-339.

이광숙(1996). 독어교육이론,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를 중심으로 -, 독어교육 14권, 69-102.

이난희, 배은하(1999).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 방법 및 학습 자료 연구 - 독일어 수업을 중심으로 -, 교과교육학 연구 제 3권 1호, 227-243.

정시호(1997). 독일어 교수법으로서의 상호문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2집, 66-105.

최윤영(1997). 독어독문학 수업과 지역학, - 지역학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2집, 251-271.

최윤영(1998). 문화연구 중심의 독일학 수업 97/98 <독일학개설> 강의실제의 분석,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 3집, 221-242.

Aufderstraße, H. u.a. (2003): *Themen aktuell 1*, Max Hueber Verlag

Niebisch, D./Hilbert, S. u.a.(2006): *Schritte international*, Hueber.

Schumann. J.(1998): *Mittelstufe Deutsch*, Verlag für Deutsch.

Bachmann, S. u.a.(1995): *Sichtwechsel Neu 1.* Unterrichtsbegleiter. Wahrnehmung und Bedeutung, München: Klett Edition Deutsch.

Ammer. R.(1994): Das Deutschlandbild in den Lehrwerken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ast, B./Neuner, G.(Hrsg.), *Zur Analyse, Begut -achtung und Entwicklung von Lehrwerken für den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 Berlin: Langenscheidt, 31-41.

Baldegger, M./Müller, M./Schneider, G.(1980): *Kontaktschwelle Deutsch als Fremdsprache*, Berlin u.a.

Biechele, M./Padrós, A.(1999): *Didaktik der Landeskunde*, Fernstudienein -heit 31, München u.a.

Buttjes, D.(1989): Landeskunde-Didaktik und landeskundliches Curriculum, In: Bausch/Christ/Krumm(Hrsg.), Handbuch Fremdsprachen -unterricht, Tübingen, 112-119.

Christ, H.(1979): Landeskunde im Fremdsprachenunterrichtsprachbezo -gen oder problembezogen, In: Hüllen, W./ Raasch, A./ Zapp, F. J.(Hrsg.), *Fremdsprachenunterricht: allgemeinbildend-berufsbildend,* Frankfurt am Main: Diesterweg Moritz Verlag, 19-33.

Christ, H.(2010): Geschichte der Fremdsprachendidkatik, In: Hallet, W./Königs F.G.(Hrsg.), *Handbuch Fremdsprachendidaktik*, Berlin: Friedrig Verlag, 17-22.

Grawe, C.(1987): Die kulturanthropologische Dimension der Landeskunde: Zu Verständnis und Kritik des Landeskundebegriffs. In: Wierlacher, A.(Hrsg.), *Perspektiven und Verfahren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München: iudicium, 459-474.

Heyd, G.(1991): *Deutsch lernen. Grundwissen für den Unterricht in Deutsch als Fremdsprache*, Frankfurt am Main.

Heyd, G.(1997): *Aufbauwissen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DaF). Ein Arbeitsbuc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Huneke, H./Steinig, W.(2000):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ührung*, Berlin: Erich Schmidt Verlag.

Ickler. T.(1984): *Deutsch als Fremdsprache. Eine Einführung in das Studium*, Tübingen: Max Niemeyer.

Löschmann, M. (1990): Literarische Texte und Landeskunde im Fremdsprachenunterricht, In: Ehnert, R./Schröder. H.(Hrsg.), *Da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in den Deutschsprachigen Ländern*, Frankfurt am Main: Lang, 337-351.

Meißer, F.J./Bär, M.(2007): Didaktik des Fremdverstehens/Interkulturelles Lernen in Lehrwerken des Spanischunterrichts, In: Bredella, L./Christ, H.(Hrsg.), *Fremdverstehen und interkulturelle Kompetenz*, Tübingen: Narr Francke Attempto Verlag, 109-132.

Macaire, D./Hosch, W.(1996): *Bilder in der Landeskunde*, Fernstudien -einheit 11, München u.a.

Mog, P./Althaus, H.J.(1992): *Die Deutschen in ihrer Welt. Tübinger Modell einer intergrativen Landeskunde*, Berlin: Langenscheidt.

Müller B.D.(1980): Zur Logik interkultureller Verstehensprobleme, In: *Jahrbuch Deutsch als Fremdsprache 6,* 102-119.

Neuner, G.(1996): Landeskundekonzepte im Fremdsprachenunterricht Beispiel: fremdsprahchlicher Deutschunterricht, In: 인문과학연구 16집,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68-72.

Neuner, G./Hunfeld. H.(1996): *Methoden des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s, Langenscheidt,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교수 방법론, 이광숙/이성만 옮김, 한국문화사.

Pauldrach, A.(1992): Eine unendliche Geschichte. Anmerkungen zur Situation der Landeskunde in den 90er Jahren, In: *Fremdsprache Deutsch 6*, 4-15.

Penning, D.(1995): Landeskunde als Thema des Deutschunterrichts - fächerübergreifend und/oder fachspezifisch? In: *Info DaF 22/6*, 626-640.

Ramin, A.(1989): Landeskunde im Rahmen Interkultureller Germanistik, In: *Info DaF 16/2*, 228-243.

Roche, J.(2005): *Fremdsprachenerwerb Fremdsprachendidaktik*, Tübing -en: Narr Francke Attempto Verlag.

Rösch, H.(2011): *Deutsch als Zweit- und Fremdsprache*, Berlin: Akademie Verlag.

Schmidt, S. J.(1980): Was ist bei der Selektion landeskundlichen Wissen -s zu berücksichtigen? In: Wierlacher, A.(Hrsg.), *Fremdsprache Deut -sch*, München, Verlag W. Fink, 289-299.

Stang, H.D.(1990): *Pragmadidaktik im Fremdsprachenunterricht*, Heidelberg: Julius Groos Verlag.

Storch, G.(1999): *Deutsch als Fremdsprachen, Eine Didaktik*, München: Wilhelm Fink Verlag.

Thomas, A.(1993): Psychologie interkulturellen Lernens und Handelns,

In: Thomas, A.(Hrsg.), *Kulturvergleichende Psychologie,* Göttingen: Horgrefe Verlag für Psychologie, 14-32.

Wazel, G.(1994): Prolegomena zum Studienfach Auslandsgermanistik für Muttersprachler, In: Henrici, G./Koreik, U.(Hrsg.), *Deutsch als Fremdsprache. Wo warst Du, wohin gehst Du?*, Baltmannsweiler: Schneider Verlag. Hohengehren, 174-188.

■ **인터넷 참고문헌**

Deutsch-französische Freunde, Deutschwelle, Grathwohl, D./ Gassen, A., http://www.dw.de/DWelle_WSSearch/-dynamic/search.seam?from=&to=&id=265&structure=265&actionMethod=dynamic%2Fglobalsearch.xhtml, 2012년 5월 18일 접속.

Gemeinsamer europäischer Referenzrahmen für Sprachen: Lernen, lehren, beurteilen, Goethe-Institut, http://www.goethe.de/z/50/commeuro/303.htm, 2012월 7월 12일 접속.

Lernen Sie ein Konzept kennen, das Lernfortschritte erlebbar macht, Hu -eber Verlag,http://www.hueber.de/seite/pg_info_konzept_sit?menu=89874, 2012월 11월 08일 접속.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별책 16】, http://cutis.mest.go.kr/-NTC/view.-jsp?gCd=S02&siteCmsCd=CM0001&topCmsCd CM0003&cmsCd=CM0014&pnum=1&cnum=0&src=&srcTemp=&pageSize=10&cPag -e=3&no=56, 2012월 12월 18일 접속.

Zusammenfassung

Eine Analyse von Themenbereichen und Präsentations -weisen der Landeskunde im Lehrbuch für DaF: 「Schritte international Ⅰ-Ⅵ」

Heutzutage wird die Bedeutung der Landeskunde im DaF-Lehrbuch betont. Anders als in der Vergangenheit lernen die Lernenden im Fremdsprachenunterricht nicht mehr nur einfach das Sprachsystem. Fremdsprachentests und die Fremdsprachan -wendung in beruflichen Bereichen oder Studium sind nicht die allgemeinigen Ziele des Spracherwerbs. In aktuellen DaF-Lehrwerken werden nicht nur die sprachliche Fertigkeiten, sondern auch kulturelle, soziale, wirtschaftliche u.a. Hintergrundinformationen über das Zielsprachenland vermittelt. Um die Fremdsprache zu erwerben, ist es auch erforderlich, dass die Lernenden die Zielsprachenkultur erkennen und verstehen.

Neben dem Spracherwerb hat die Landeskunde ein besondere Bedeutung für die Methodik und Didaktik des fremdsprachlichen Deutschlernens. Es geht im Bereich DaF um eine kulturwissenschaftlich -e Akzentuierung der Fremdsprachdidaktiken. Daher wird die Landeskunde im Unterricht zum Fremdsprachenerwerb aufgewertet.

Die Landeskunde im DaF Unterricht spielt eine wichtige Rolle in zwei Punkten.

Erstens lässt die Landeskunde die Lernenden ihre kommunikative Kompetenz verbessern. Die Lernenden reduzieren ihre Fehler bei der

Fremdsprachenanwendung, die auf einem Missverständnis über die Kultur des Zielsprachenlands beruhen, durch das Lernen der Landeskunde und sind in ihrer Urteilsfähigkeit für die Sprachanwendung mit einem breiten Verständnis des Zielsprachenlands bewandert.

Zweitens können die Lernenden ihre interkulturelle Kompetenz durch das Lernen der Landeskunde verbessern. Die fremde Kultur wird auf dem Hintergrund der eigenen aufgenommen. Man sieht in der Landeskunde die Möglichkeit, nicht nur die fremde Kultur, sondern auch die eigene besser kennenzulernen. Das bedeutet, dass die Landeskunde die Anerkennung der Fremdkultur fordert, die sich durch die kritische Einschätzung auf die eigene Kultur gründet und zum Perspektivenwech -sel führt. Dadurch sollen die Lernenden Vorurteile, Klischees über die Fremdkultur abbauen. Die Lernenden vergleichen bewusst die eigene Kultur mit der fremden. Dieser Vergleich sorgt vor allem für eine bessere Verständigung zwischen zwei Gesellschaften, aber auch für eine bessere Entwicklung der persönlichen und nationalen Identität.

Bei meiner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en Anwendungsentwurf für ein systematisches und effektives Landeskundelernen im DaF-Lehr buch.

Um dies zu tun, untersuche ich zuerst die Entwi-cklungstendenz der Landeskunde. Landeskunde ist nicht in klaren Konzepten bestimmt. Unter diesen Umständen, verwirklicht sich das Landeskundelernen einigermaßen mit Lehrbüchern im DaF Unterricht in Korea. Deshalb wurde “Schritte international Ⅰ - Ⅵ”, das meist benutzte Lehrwerk in Korea analysiert: Und zwar der Themenbereich und die Präsentations -weise der Landeskunde. Vor diesem Hintergrund wird dann ein Anwendungsentwurf des Landeskundelernens vorgestellt.

In meiner Arbeit lege ich großen Wert auf die Lehrbücher, die Lehrer, die Lernenden, die ein wesentlicher Bestandteil des DaF Unterrichts sind. Daher schlage ich einen Anwendungsentwurf des

Landeskundelernens im Deutschlehrwerk vor, in dem die Themenbereich -e, die Präsentationsweisen, die Lehrbücher, die Lehrer, die Lernenden berücksichtigt sind

Darüber hinaus sollte die vermittelte Landeskunde, hinsichtlich der Lehrmaterialien, des Einsatzes verschiedener Medien, der Methodik und Didaktik systematisch untersucht werden. Außerdem sollten die Themen -bereiche der Landeskunde die koreanische Lehr- und Lernsituationen widerspiegeln.

Stichwörter : Landeskunde
Schritte international
Deutsch als Fremdsprache
Themenbereich
Präsentationsweisen

Studentenausweisnummer: 2010-23569